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增稅數字로본 朝鮮
이以上增稅는不可

一

馬場藏相의 增稅政策에 依하야 年四億圓의 增收를 目的한 稅制整理案이 發表되여 財界、政界에 一大衝動을 준것은 旣知의 事實이다。그런데 이에 關聯하야 朝鮮에도 稅制改革說이 傳하야 數年來 國稅、地方稅의 改正으로 人民의 負擔이 激增한 今日 萬一 이것이 實現되면 一層 負擔過重이 될것이라하야 吾人은 미리 그 不當을 論한바 한두번이 아니거니와、最近 當局은 亦是 稅制改革을 考慮하야 昭和十二年度부터 第一、第二所得稅의 增收等을 計畫하리라하니 다시 그不當을 指摘하야 當局의 反省을 促하지 안흘수업다。

二

먼저 朝鮮人의 納稅數字로 볼것가트면 昭和九年度 決算에잇서서 日本內地가 八億四千三百餘萬圓임에 對하야 朝鮮은 五千六百十二萬餘圓으로 日本內地는 一戶當 一百三十三圓四十四錢 朝鮮은 一戶當 八十圓七十錢으로 되여잇다。即 朝鮮은 日本內地의 約六割을 負擔하고잇다。朝鮮의 富와 收入이 同等이면서 그 負擔이 六割이라면 朝鮮은 負擔이 적은 셈이 되지나 吾人의 調查한 數字에 依하면 朝鮮의 富와 收入은 日本內地의 그것에 比較하지 못할만치 적은것을 본다。따라 朝鮮은 現在 日本內地보다 納稅負擔을 比例로 만히하고잇스며 今後 減稅를 할지언정 增稅는 말어야 할것을 알수잇다。

三

試하야 兩者의 富를 比較하건대 昭和九年度末現在 日本內地의 農林漁工鑛業의 總生產額은 一百八億四千七百餘萬圓으로 一人當 百五十四圓임에 對하야 朝鮮의 그것은 二十二億餘圓 一人當平均 約十圓으로 前者의 七分弱에 不過하다。그리고 貿易額으로 보드래도 日本內地는 同年에 輸出額 二十一億七千百萬圓、一人當 三十一圓에 對하야 朝鮮은 四億六千五百萬圓 一人當 二十圓으로 朝鮮은 日本內地의 六割二分에 不過한다。또 會社拂込資本金을 보드래도 日本內地가 一百四十五億四千八百萬圓、一人當平均 二百八圓임에對하야 朝鮮은 朝鮮에 本店을 둔會社의 拂込資本이 四億六千五百萬圓 一人當平均 十八圓으로 前者의 九分에 不過한다。끄트로 普通銀行의 預金及 貸出로 보드래도 日本內地는 預金 一百二十億五千六百萬圓、一人當平均 一百四十二圓에 對하야 朝鮮은 預金 十七億四千四百萬圓、一人當平均 七十六圓이며、貸出高는 日本內地가 九十二億六千八百萬圓、一人當平均 百三十二圓에對하야 朝鮮은 十億九千五百萬圓、一人當平均 四十七圓에 不過한다。그러므로 朝鮮은 日本內地에 比하야 預金에잇서서 約五割 貸出에잇서서 約三割五分에 該當한다。

四

이와가티 朝鮮은 富에 잇서서 日本內地의 二、三割도 못됨에 不拘하고 納稅負擔에 잇서서는 六割이란 數字를 가진것은 朝鮮人의 負擔이 過重하다는 것을 證明한다。[illegible] 서서 日本內地보다 [illegible] 點가 잇고 稅率이 만흔것은 [illegible] 를 證明할수잇다。假令 營業稅의 免稅點이 얏다는것이 라든지 [illegible] 이며、地稅의 [illegible] 한것等은 그 一例다。況 人民의 가장 [illegible] 으로 여기는 戶別稅의 것에 잇서서랴。게다가 朝鮮은 昭和七年 國稅의 改正과 今年 地方稅制의 改正으로 所得稅、家屋稅、相續稅、戶別稅의 增收를 보앗다는것을 생각한다면 到底히 增稅云云은 容餘地가 업슬것이다。當局의 一大反省을 促하는바이다。

國交重大化를覺悟 蔣氏歸京決意?
張氏와가튼薄弱한權限으론 交涉展開될希望全無

【東京電話同盟】南京의 日中交涉은 排日暴行事件頻發과 中國側의 頑迷姑息한 退嬰的態度로써 全然進退維谷狀態에 逢着하기에 이르럿는데 有田外相은 二十五日 駐日中國大使許世英氏의 來訪을 求하야 最高責任者인 蔣介石氏가 南京에 歸還하야 交涉의 局面에 설것을 慫慂하엿던바 二十八日某所에 達한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도 事態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南京歸還을 決意하고 大體 來月三日頃 廣東發 歸京할 豫定한 模樣이다 即 蔣介石氏는 自身이 交涉의 前面에서는것이 不利하다하야 西南軍事工作에 藉口하고 張群外交部長으로하야금 局面을 糊塗하고잇섯는데 日本側의 決意가 頑固하고 交涉이 드듸여 最後的破局에 直面하게 이르럿슴으로 張群外交部長의 뜻을 밧고 廣東에 急派된 吳鼎昌、王世杰、高宗武氏等의 勸告를 容認하야 드듸여 出廬의 決意를 한것으로 推測된다 이것으로말미아마 蔣介石氏는 去二十六日附로 軍事委員會委員長、廣州行營主任으로 任命하야 廣西와 政治交涉의 責任者로하고 廣東退陣의 準備와 日本側要求에 依한 歸還이 아니라는 國際宣傳을 口實삼아 歸京을 決定하엿다고 잇는다 그리고 日本側으로서는 排日取締 國交調整等 要求事項에 對하야서는 依然 外交責任者인 張群外交部長과 折衝을 開始할라고 하고잇는데 張群氏가 從來와가티 一一히 蔣介石氏의 指示를 밧는 薄弱한權限을 가짐에 끄친다면 蔣介石氏의 歸京을 기달리지안코 斷乎히 交涉을 斷切하고 蔣介石氏歸還을 기달리어 日本要求의 全面的回答을 求하야 日中關係의 基礎를 決定할 方針이라解釋된다

大角大將이 海相代理로扈從

【東京電話同盟】軍事參議官大角海軍大將은 海相代理로 二十八日午後七時上野驛發列車로 大演習地北海道에 向하얏다 그리고 同大將은 天皇陛下의 還幸까지 扈從을하기로 되엿다

外人記者團과 外相의一問一答內容
—日中問題에對하야—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外國新聞通信記者團과의 會見에서 有田外相은 一問一答形式으로 左와如히 日本政府의 態平한方針을闡明하엿다

問 現在의 日中交涉이 進展못되는 如何한 措置를講究할 方針인가

外相 될수잇는대로 外交手段에 依하야 解決할것을 期待하고 잇다

問 外交交涉이 失敗되는時 如何한 對策을 取하겟는가

外相 假定의 質問에 對하야는 言明할수업다

問 中國側은 日本에對하야 [illegible] 하려고 하겟는가 그러치안흘것인가

外相 現在는 日中關係가 [illegible] 化할가 或은 逆轉할가하는 岐路에잇스므로中國도 반다시 [illegible] 의손을내밀것이다

問 目下日中交涉의 主題가되고잇는것은 排日抗日의根絶과國交調整의 兩問題라는데 國民政府가 果然排日抗日根絶을할수잇슬줄멋는가 또今日까지 多年 그原決을못하엿던理由는 奈邊에 잇는가

外相 排日이根絶못된것은 國民政府의 決心이 아즉 充分치 못한데 基因하는것임으로 取締의決意가 充分하면 그根絶은 可能하다

問 排日抗日의 根本原因은 무엇인가

外相 그原因은 여러가지나 根本的인것은 國民黨部의 革命外交에 基한것으로 日本의行動에 對한 誤解에서 出發한것이다 或은蔣介石을 排除한 地位에 [illegible] 하려는 策謀라고도 하고 或은 共産黨이 [illegible] 을 企圖키위한 策動이라고도한다

問 共産黨에對한 措置란무엇인가

外相 共産黨은 東亞의秩序를攪亂하는故로 [illegible] 三原則中에서 共同防衛를 南京政府에對하야 要求한바이다 中國側은 排日運動裏面에 共産黨이잇다고公言하고 成都漢口不祥事件도 이것을 [illegible] 하고잇다 어데든 中國共産黨의 策動은 我國의重大關心事임으로 이에對하야 有效適切한措置를取할것은 必然하다

問 蔣介石氏가 眞實로 排日을根絶하고 共産黨을 撲滅할수가 잇슬가

外相 그것은 오로지 國民政府의、最高責任者蔣介石의 決心 如何에依할것이다

問 南京政府當局이 日中兩國關係의現狀을 充分히 認識하고잇다고생각하는가

外相 中國이 [illegible] 充分히 [illegible] 하고 [illegible] 分析 [illegible] 國이 [illegible] 안는다면 [illegible] 原因이 [illegible] 中國大使에對하야 [illegible] 强調하고 [illegible] 를 充分 [illegible] 두엇는데 이 아즉 [illegible] 하지 [illegible] 다 自己는 日中兩國關係가 重大岐路에 서잇는現狀에서 中國이 [illegible] 히 對日態度를고치고 日中提携를 [illegible] 하기를 衷心希望하고잇다

蔣介石氏廣東出發 飛行機로廬山에
軍用機二臺로써護衛

【上海二十八日發同盟】中國側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二十八日午前九時二十分 自家用飛行機로 廣東飛行場을 出發하야 三台의軍用機를 거느리고 北上하얏다 同氏는 南京에直行치안코 廬山에向한模樣이다

海軍의强硬方針 寺內陸相에傳達

【東京電話同盟】豊田海軍軍務局長은 非公式軍事參議官會議散會後二十八日午後三時 陸軍省에 磯谷軍務局長을 訪問하야 다시海軍當局의 對中强硬方針에 關하야 事件의 經過와 그對處策및 海軍의決意를 披瀝하고 아울러 二十八日의 廣田首相、有田外相、永野海相 三相會議에在한 發言內容을 傳하야 右言를 大演習地에 잇는 寺內陸相에게傳達키를 要望하고 辭去하엿다 따라磯谷軍務局長은 二十九日午後七時上野驛發列車로 北上渡道하야 寺內陸相에게 牢固한 海軍當局의 對中方針을 傳達키로되엿다

和蘭首相의演說 全世界關心集注
길다貨도結局平價切下

【암스텔담二十八日發同盟】和蘭首相코라인氏가 二十八日午前八時에한 라디오放送演說은 和蘭政府의 新通貨政策을 闡明한것으로서 全世界의關心을 喚起하얏는데 首相은同演說에잇서 길다貨의切下問題에言及치안코 오즉 길다貨를多少軟調化할는지도 모르겟다고한데 不過하엿다 右首相의演說의詳細에 對하야는 種種의說이잇다 암스텔담銀行은 非公開會議에서 結局길다貨는 十%程度의切下를 하리라고보고잇다

中國側은否認!
蔣氏는依然廣東에滯留

【上海二十八日發同盟】信任할中國側情報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目下廣東에서 張群氏를 顧問格으로하야 對日交涉方針을 研究中인데 現下緊迫한情勢에서 蔣氏가 南京에 歸還하야 川越大使와 日中國交調整의 直接折衝을하는것은 日本에有利케하는憂慮가잇고 또對內的으로·自己立場을 不利케한다는 見解로 十月二十九日 誕生五十歲 記念日을 廣東에行한다는 理由로 그때까지 南京에 歸還치안코 川越大使와의 交涉은 專혀張外交部長으로하야 行케하고 또佐藤喜多陸海軍兩武官과의 折衝은孔祥熙財政部長에게 當케하기로決定한模樣이라한다

天皇陛下께옵서 釧路行在所御還幸

【釧路電話同盟】根室行幸을마치신 天皇陛下께옵서는 二十八日午後四時二十六分 釧路驛御着車 조금도 御疲勞의 빗도업스신듯이 龍顔御麗하시게 釧路에 還幸、市民奉迎裡에 略式自動車遊로 同四時四十分 行在所男子高等小學校에御着、釧路에서의第二夜를지나시엿다 地方行幸第四日은 二十九日午前八時行在所御出門 同八時十四分 釧路驛御發車 同十一時三十分帶廣驛御着車行在所 帶廣市明星小學校入御 午後一時行在所御出門 北海道製糖株式會社 帶廣工場에行幸 業務를親히 天覽하시고 이로부터北海道廳立十勝農業學校에 臨하시사 同校特殊의 開拓敎育을 詳細히 天覽하시고 午後二時廿六分 行在所還御 다시午後三時四分 御出門 御親閱場인帶廣飛行場에行幸 一萬二千의在鄕軍人團 男女學生靑年團 御親閱의御豫定이시다

西班牙動亂畫報 — 戰爭은 悲劇이다 이悲劇의 가장深刻한 場面을演出한것은、佛西國境의 西班牙都市이룬城이 叛軍에게 陷落되던前後에 이러난事態이다、政府支持의 義勇兵은 數千의死傷者를 遺棄하고 退却함에當하야 叛軍이利用못하게하노라고 主要建物을 거의 불지르고마럿다 義勇兵은 九死一生으로 對岸 佛國領에 避難하야 오이룬市의住民들이 茫然히 悲慘한이룬市가火焰에 싸힌光景을無念히처다보는것

無任所相設置에 政友會側贊成
省의廢合에도同感을表示
交通、文敎、社會省新設

【東京電話同盟】政友會는 行政機構改革에對하야 目下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銳意調查立案에 努力中인데 今回寺內陸相이 廣田首相에게 案의大綱을 示하야 强硬히 그實行을 迫함에 對하야 非常한關心을 가지고잇는데 陸軍案內容이 아직明瞭치안한고로 이에對한 的確한 批評은할수업스나 大體傳하는바 無任所大臣設置와 省廢合에對하여는同感을 表示하고잇다 即政友會로서는 從來 各省의 分捕主義를 廢하고 內閣을 强化하야 事務統一을 圖謀하엿다 이미現內閣成立當初 鈴木總裁로부터 首相에對하야 無任所大臣設置를 進言까지하엿던것이다 我黨이고로기ー미레 目下特別委員會에서 內閣制度改革의 腹案이 起草되여 近近이를 基礎로 하야 政務調查會議를 一括하야 幹部의 裁斷을 바들豫定인데 目下研究中項目은 如左하다

一、內閣制度를廢하야 無任所大臣과 各省行政長官을 分離할事
一、國務大臣은六名乃至九名으로할 即原則으로서는 首相外에國防相 財政相 外交相 產業相 內政相 交通相을 設置하고其他隨時情勢에應하야 首相의責任으로 此를設置함
一、省의廢合
(一) 交通省의 設置 (遞信、鐵道兩省을廢하야 此에 內務省土木局을 倂合시킴 또 航空局을 外局으로함)
(二) 文敎省의 設置 (現在文部省에 神社局과 文化宣傳局을外局으로함)
(三) 貿易局의 新設
(四) 社會省의 新設 (勞働、衛生、社會事業을管掌케함)
(五) 農林、商工은 現在대로하고 一人의國務大臣이 兼任할事
一、內閣에 調查局 豫算局 法制局 統計局 人事局을 設置할事
(一) 調查局은 現在制度를 改定하야 十名內外人材를 集合시켜서 프레인트라스트로함 現在調査官은 專屬한 事務의 調査를 시킴에 不過함
(二) 人事局은 各省人事行政을統一하기爲하야 勅任以上의 人事를 掌理케함

選擧法改正은 少範圍限定
政府意思明瞭

【東京電話同盟】選擧法改正에關하여서는 目下小山前法相을 委員長으로한 選擧制度調查會 特別委員會에서 그 具體案作成을 爲하야 愼重審議中인데 選擧法改正을 企圖하는以上 現行選擧制度의 根本에 觸하야 考慮할것인데

一、比例代表制採用의 可否
一、職能代表制의採否
一、婦人選擧權賦與

等이 그中心이될것이다 그런데 今回政府가 意圖하는 選擧法改正範圍는 極히 小範圍에局限되여 末稍的改正에끄리게할라는것이 明白히看取되엿는데 벌서그進行은 悲觀視되고잇다 即政府는 前議會에서 衆議院選擧法改正에 關한 決議主旨를 尊重하고 選擧制度調查會의 政府側答辯 其他를 綜合하면 改正을 目標로한것은

一、選擧運動에 關한 取締規定改正
一、選擧公營制度의改正
一、選擧運動費用에 關한 規定改正
一、連坐規定의擴張 實際의司否
一、選擧犯罪時効期間延長의可否
一、選擧手續에 關한 規定改正

等으로 現行選擧法改正을 基礎로하야 部分的改正을 行하라고하는것인데 根本的改正을 行할 決意가업는것은 明瞭하다

西政府、飛檄코 最後의支援要請

【마드리드廿七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二十七日全國에 飛檄하야 首都마드리드의 危機를 呼訴하고 最後의 支援을要請하얏다『政府는事態를隱蔽하려고는 생각치 안는다叛軍은 外國에서 補給된 有力한 武器를背後로 全力을集中하야首都에 肉迫하고잇다 全國民은 速히蹶起하야 牙城마드리드를死守하기를바란다』

中樞院會議 九、十兩日開催

今年度中樞院本會議는 來十月九、十兩日 總督府 第一會議室에서 大野政務總監 統裁下에 開催 總督府各局 新事業計畫及 一般民情에關하야 各局長으로부터 說明할總督諮問答申에對하야 協議를 行하엿다

羅津府制 十月一日부터實施

羅津邑의 府昇格은 二十八日府令으로서公布 十月一日부터施行되기로되엿다 初代府尹에는 現邑長 田口禎憙氏의 昇任될게 될터이다

事務官級異動 十月二十日頃

半島官界 注目의的이 되여잇는 總督府官制及 地方官官制改正은 이제 公布되엿다
一、農村振興 米穀 農務三課新設에依한 總督府事務官 分掌規程改正
一、京城府三部制 實施
其他事務官以下 職員增加에伴한 官界異動에對하야는 右公布와가리 人事課에서 人選銓衡에 着手하엿는데 事務官級異動에 對하여서는 日本內地에서 陸軍大演習이잇는關係上 多少遲延되고 十五日頃까지에 內閣에 提出할手續을取할豫定인고로 發令은 大體 十月二十日前後로 될模樣이다

時事漫畫 正義냐? 權力이냐? 될런지마에빠진 國際聯盟

夕刊後市況 廿八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一七一〇 (一〇高)
總新 一七二五〇 (一〇低)
日連 一八〇五〇 (一〇低)
東新 一三七〇〇 (不變)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一九〇〇 先限 七一七〇〇

◆澁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 五九四〇

今日朝刊八面

秋風이 부러올때 工夫에 여층한時間을 벌려주라
世界의言語 立身의武器 英語는 곳 당신의 것!

井上英語敎育レコード吹込者敎授 トーマス

オリムピック決定の一九三六年 英語の必要を感ずること痛切!

도라오는 世界의中心은 日本!! 只今이야말로 찬쓰、모도世界의 言語『英語』를始作합시다 英語야말로임이 近代人의 常識으로不可缺의것 現 中學以上에는 가장 重要한學科입니다 今日以後 英語를아지못하는분은立身의第一資格을 이러버린사람일것입니다!!

井上英語講義錄

月一圓廿錢・英語レコード贈呈

井上十吉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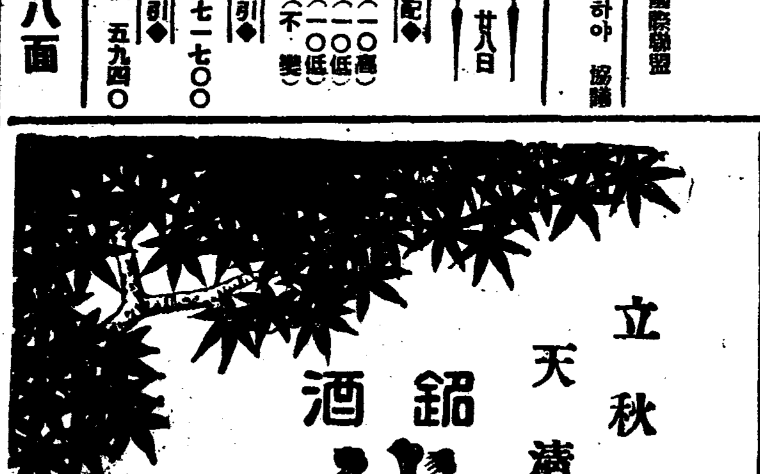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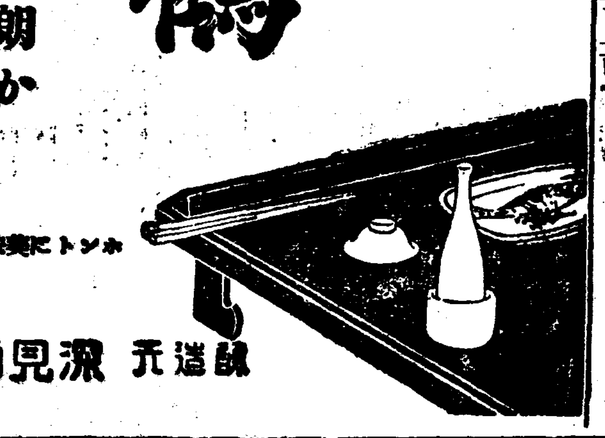
日本一의英學者井上十吉先生이쓰신『井上英語講義錄』알기쉬운과라디오放送으로大好評인 도ー마스先生의英語레코ー드(無代贈呈)로 自宅서獨習하면
○一個月로英語를읽을수잇고
○二個月로英語를쓸수잇고
○三個月로英語를말할수잇다
이가리로 훌융히熟達할수잇슴니다 먼저內容見本을 一覽하시라

特別附錄贈呈
講義錄月二回雜誌一回 月一圓廿錢・左の附錄贈呈
井上英語讀本(六冊)
英語レコード(十二面)
英文復習帳(六冊)
英習字帳(二冊)
英語單語カード
受驗單語カード
受驗熟語カード
井上英和小辭典(六冊)
月刊雜誌イングリシュ
米國官選新集(一冊)

內容見本進呈 (申込所)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葉書로申込하면 七十頁以上의 훌융한見本을 付送합니다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 (簡單히되고○年中無休○原紙供給○製品은永久히現金으로確實)
引受 (의製袋業案內書無代進呈한다 代理店募集)
大阪市天王寺區桃谷驛前電停前 太陽社營業部

朝鮮日報社 安岳支局 電話二八番


立秋 天淸し
銘酒 誠鶴
の一杯、氣朗か

釀造元 澁見酒造場

××……搬入에 奔忙한 學生美術作品 (本社講堂에서)

學生美術展覽會
百花絢爛의殿堂
天才의登龍門에遝至한傑品
開會切迫人氣沸騰

들에는 오곡이 익어무르녹고나무엽헤는 단풍이들기시작하야가을은 바야흐로 한고개를 너머지려가려하는 자연 개의 예빠「씨즌」의바자를 마추어 오는시월오일부터 십사일까지 열흘동안열리기로되는본사주최 제일회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는 전조선 남녀학생들의 인끼를 총집중하고잇서 반입(搬入)최종일인 삼십일(지방반입지국은 이십구일)을압두고 본사서무부(庶務部)에는서양화 동양화 공예품등 작품이산뎀이가티 몰려들어계원들은임새어서 반입되는 작품받기와처리에 눈코뜰새도는 상태이다반입된 작품은 시월일일오전부터 심사(審査)를 시작하야 심사일을마추는대로 본회장인본사대강당에 진열하야오일부터일반에게공개할터로이전람회는전조선각처중、초등학교에 숨어잇는천재들의작품을뽑고 또뽑어서 가장우수한작품만을 뽑어낸터이니비록중、초등생들의작품이라할지라도 상당한예술수준을넘어서서가을철의예술전당을나타낼것이다

한상고심업도공판은 이십팔일오후두시 고등법원에서 희두(喜頭) 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미테열엿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대로 상고기각판결을내리여 드디여 원심대로 사형이확정되엿다

平鐵管內列車事故
六十五件死傷九名

【平壤】평철관내에서 팔월한달동안에 발생한 렬차사고는 아홉명을내엿는데 사고내역은 다음과갓다

▲列車妨害二▲車輛脫線二▲列車遲延二六▲列車火災一▲線路故障一三▲機關車故障二▲計六五件

終熄不知의畜牛流感
黃平二道를席捲
三道의罹疫牛가萬頭를突破
秋收期農村에大打擊

【平壤】축우(畜牛)를쓸더니는 류행성감모는 최초만주에서 평북지방에 감염되엿다가 다시 청천강을건너 평남일대에파급햇고남편으로 황해도에까지 창궐하여 최근의 통계를보면 평북에이천두 평남에오천두 황해에일천오백두 약일만두가 이지독한류행성감모에 넘어젓다

방금 수확기를압두고 축우의로역을 밋는농가의 랑패는실로커서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은우수에싸여잇다한다

荷車에실은 人造絹紛失
運送店人夫大驚失色

눈감으면 코베먹을세상이란말의 구현화(具現化)한이야기ㅣ부내 아현정(阿峴町)사는 김재우(金在雨)(三二)는 『마루보시』(丸通)운송점인부로 이십팔일오후일곱시삼십분쯤에 인조견(人造絹)이가득한 시가이백여원의 짐을구루마에 싣고 종로(鍾路)이정목사거리부근까지와서 구루마를잠간 인사정(仁寺町) 동양상회(東洋商會)에 드려갓다가 와서보니 나와보니 그사이에어떤자가 전부인조견상자를 훔처갓슴으로 대경실색하야 종로서에 신고하엿다 동서에서는 시각을옴기지안코 시내각서에수배하는동시에 목하범인을 엄탐중이다

시골農夫가 서울와서自殺

생활고나 실연이나 시골농부가서울에와서 원인모를의문의 죽엄 죽은사람은게는입이업다ㅣ수원군왕림면대장리 (水原郡旺林面大往里)에사는 농부조황금(趙黃金)(三〇)은 이십칠일밤에 상경하야 부내락원정(樂園町)구십구번지충북려관(忠北旅館)에 묵고잇섯는데 이십팔일오후여섯시쯤에자긔방에서 다량의「카르모친」을먹고 고민하는것을 발견한주인이 곳부근 지성주(池盛周)병원에 떠메여다가 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 오후여덟시 이십분쯤에 드듸어 절명하고말엇다한다그런데 자살한원인은 도모지알수업스며 소지품도 별로업다고한다

"間共"一派의 上告를棄却
原審대로死刑

간도공산당일파로 청진지방법원에서와 경성복심법원에서 모다 사형판결을바든 만주국연길현승애하명월구 (延吉縣…明月溝)송남수(宋南洙)(三七)에 관한치안유지법위반및살인사건에 관

創立卅週年마지한
永生高普의慶事
財團完成과體育館建設等
同窓會에서着手進行

【咸興】함북에잇서서 최초의중등학교로 춘풍추우 삼십개성상동안 가진고초를 겪거오면서 수천명의인재를 배출(輩出)식힌 함북교육계의 『어머니』인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永生高等普通學校)에서는 오는시월오일오후두시부터 동교대강당에서 개교삼십주년긔념식을 거행하기로되얏다

이와동시에 동교에서는 이외에잇는 삼십주년을 좀더의의깁게긔렴하려는의미로서 아래의량대사업을 완성할것을 쪽단적으로서명하야 팡휘잇는 동교의력사우에 다시금새로운 팡휘를더하게되엿다

즉 동교로하여금 반석가튼경제적 토대우에 노히 좀더 튼튼하게 나아가게 하기위하야 오십만의 재단(財團)조성을 완성하기로 되야 시작한지 불과사오개월에벌서 이만여원의 거액이 모혀잇는대 좀더뜻잇는인사들의 지지를어드면 불과삼사년래에 완성될것으로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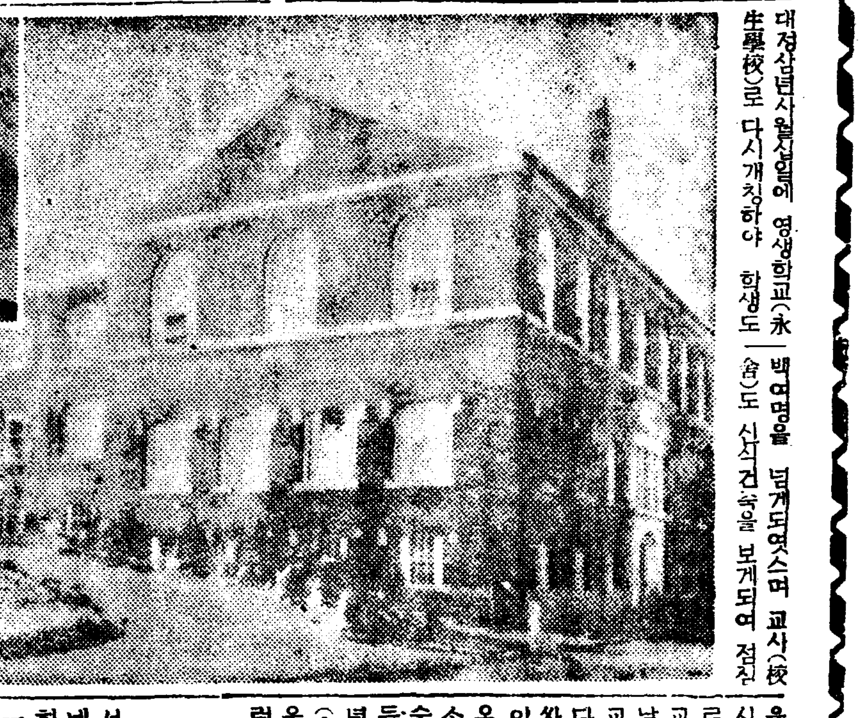
다음의하나는 북조선에서는아직것소리조차들을수업는 긔렴체육관(記念體育館)의 건축으로서이것은 동교졸업생과 재학생을일단으로하야 조직된 동창회(同窓會)에서 주체가되야 이미이개월전에 동회에서 구체적협의를지내여 공사비예산 일만원도거의모이게되야 금년내로는 긔공(起工)하기로되엿다한다

光輝잇는歷史

이제 동교가 이와가티 양양한전정을가지게되엇스며 관북인사들이 함께깃버하지안흘수업는동교의 삼십주년 긔념을 당하야과거삼십년동안 험한길을 걸어온자최를 소개코저한다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전측명치삼십구년구월십오일 바야흐로단풍이 들려할때 함흥부신창리(新昌里)의 수려(秀麗)한 산모롱이에 민가(民家)한간을빌어 단지여섯사람의 학생을 모아노코 당시의 선교사 리류의시 (李…義瑞)가 몸소 교편(敎鞭)을 잡게된것이 동교의 람상(濫觴)이다

그후에 삼년을지난 사십이년팔월이십사일에처음 학교(學校)로서의 면목을 나타나게되여 영생중학교(永生中學校)로서의 인가가 내렷스며 다시오년을지내대정삼년사월십일에 영생학교(永生學校)로 다시개칭하야 학생도백여명을 넘게되엇스며 교사(校舍)도 신식건축을 보게되여 점차



융성의길을 밟게되엿는데 또다시 불행히도 십일년이월에 이르러서 원인모를 화재로말미아마교사가전소되얏다 그러나 오늘날의융성이 이미약속되고잇든동교가 이만큼한불행에락담되랴! 다시금 백척간두에서서 역경과싸우면서 매진한결과 그후삼년이지나서 십사년구월에 삼층양옥의 당당한 교사를짓게되얏고소화륙년삼월일일에 이르러서는숙망이성취되여 신제(新制)의고등보통학교로인가가되엿스며 칠년오월십일일에 현교장 김관식(金觀植)씨가 취임한이후에 더욱복을바터 오늘날의융성에이르럿다

四大行事開催

삼십주년긔념일을당하야동교에서는시월오、륙일이틀동안에빼처네가지의행사(行事)를 성대히개최하게되엿다

一、敎員十個年勤續表彰 五日記念式擧後

二、生徒作品展 五、六日二日間

三、大運動會 六日午前九時卅分부터

四、音樂會 六日午後七時부터

(사진은 영생고보교사와 김교장)

設備不完全으로
城津港被害多大
저번暴風雨로非難漸高

【城津支局特電】이십팔일밤에성진(城津)지방을엄습한 폭풍우로말미암아 성진항안에서 배가여러척이파손되며 선원이십여명이희생되엿다 자세한것은 아직조사중이나 피해는 항만설비가완전치못한까닭이라하야 비난이놉다

百餘戶의七百수저를
하로밤새에窃取
求禮郡下에怪賊橫行

【求禮】세상에는 가지각색의도적놈이잇것만 이도적질이야 말로 괴상망측한 색다른도적질이전남구례군광의 면(全南求禮郡光義面)일대와 룡방면 (龍方面)일부에 횡행하고잇다!

지난이십삼일밤에 전긔광의면북부일대에서는 백여호의 수저(匙)가하로밤사이에 업서젓다는데 수저를당은 바구니속 에는놋그릇(鍮器)도들어잇슴에도 불구하고 갈힐한수저만가지고 갓스며 백여호에 륙백팔십여개의수저를 하로밤동안에 훔처간그신긔한방법과 수저만을도적질한봉의를 리해키어렵다는데 범죄수저에는 은(銀)이나 금(金)이포함되야 제작한것이 잇슴을알고 수저만을훔처간것이라는 억칙도잇고 또는미신(迷信)에서나온흉계라고하는 설도잇서서해석이구구하야 가진풍설이비어가 촌부터들사이에 울퉁하고잇스며수저가업시 손으로밥을 먹고잇는집이 수십호이고 대전리(大田里)연파리(煙坡里)신지리(新智里)수월리(水月里)방광리(放光里)온당리(溫堂里) 구만리(九萬里)및 룡방면 신기리(新基里)등지까지에 아즉그도난이 계속되고잇다고한다

職業學校入學者

경성공업직업학교에 입학허가된사람은 다음과갓다

◆自動車科

蔡文星 李錫永 裴基甲 尹南合 洪錫約 崔南柱 朴炳秀 李宗九 具春啓 高白雲 方相容 崔榮顯 諸漢升 崔亘植 李東植 淡秀美 柳周鉉 金貞經 李奎福 洪丙泰 李好善 兪致榮 (以上二二名)

◆電氣科

高承煥 韓光熙 鄭吉源 李元燮 金鍾五 鄭鎭萬 趙炳樹 李基元 金七有 安光烈 (以上一〇名)

◆時計科

朴炳秦 洪采觀 金命植 韓亨淳 中上正觀 徐亨燮 鄭文基 金永勳 三輪信夫 朴倫昌 朴性暉 (以上一一名)

◆挽物科

金基龍 金鎭商 矢倉明 安明模 鍵三衛 (以上五名)

◆製材科

金義變 趙鏞洙 吳龍鳳 崔國熙 任寶鉉 李相奎 (以上六名)

人道敎團도彈壓
敎祖御木等檢擧
大阪府警察部가그正體를糾明
發端은桃色暴露로

【大阪特電】사교(邪敎)대본교(大本敎)를 박멸한이래 내무성에서는 각 부현경찰부에 통첩하여 류사종교의 철저적박멸을 독려하고잇든중 대판부(大阪府)경찰부에서는 각작히 지난이십칠일 오후한시 부특고과본전(本田)경부가 대장이되여 과원 마흔명을 다섯대의 자동차에 태워거느리고 대판지방검사국 장곡천(長谷川)주석、안달(安達)사상주임 두 검사의 지휘를바더서 대판부중하내군포시(中河內郡布施)에 거주는전(本殿)을두고 전국에 류사신도를 가지고잇다는 부상교(扶桑敎)인도교단(人道敎團)본부를 습격 그교단의 창시자인 초교조 어목덕일(御木德一)(六七)과 및그츠근자 두명을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곳 부경찰부로 데리고갓다

그 교단에서는 이십칠일 전국각지로부터 신도 삼천명가량이 모혀서 교조어목씨가 사조(師祖)될 어목덕근(德近)(三五)에게 계이대 교조를 인계한뒤이니만치 각부 신자들은 대경실색하여 큰소동이 일어낫다。

교조 덕일씨는 이지음 어떤녀자로부터 정조유린문제로 고소를당하얏스므로 미리부터 그교단의 내용에 의혹의눈을 가지고내사를하고잇든 부특고과에서는 단홍코 그교단의 정체를구명코저 이번의 검거를 보게된것으로 교조어목덕일씨의 문초에 따라서 그 교단에 대해서대철퇴를 나릴것으로 보힌다。

七十餘名漁夫와
百餘洞民이亂鬪
雙方에十餘名重輕傷

【咸興】지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경함남덕차호(遮湖)항 룡전리잔교(龍田里棧橋)부근에서는 어부칠십여명과 동리주민 백여명의사이에 일대란투극이 연출되야소관차호 주재소에서 십여명의경관이 현장에출동하야 떼서러으로제지한결과 동열한시방에겨우진압되엇는데 이싸홈으로인하야 십여명의 중경상자를 내이엇스며 일시는 그형세가자못험악하엿다

그싸홈의 원인을 들으면 현재차호(遮湖)항에는 정어리잡이의배가모여왓스며 그어부가 삼천여명의 다수에달하는데 지난이십오일부터 풍랑(風浪)이심하야출어를 하지못하고 모다상륙을하야서 술을마시며 야단들치고잇섯는데 그날저녁에 무슨사소한원인으로강원도 삼척(三陟)삼광환(三光丸)의선원 박긔태(朴基泰)라는 사람과경북(慶北)에잇는 평안환(平安丸)선원 사이에말성이생겨 싸홈을 하고잇슴으로 마츰그곳을 지내가든그동리구장리용필(李鎔弼)이가 그것을말니려하엿는데 술취한선원들은들이여 그구장을때리엇다고한다

이에 분개한 동리주민들이그선원을 때리려고 모여들게되매선원측도 역시칠십여명이나 모아서로 싸우게된것이다

蓬萊町強盜行方杳然

기보ㅣ지난달 이십구일 새벽에 부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에잇는 일용잡화상(日用雜貨商)봉래상점(蓬萊商店)에 식도를가진 강도가 침입하야 주인 제인서(諸仁瑞)(三三)의 목과가슴을 여섯군데나 찔은후현금삼십원을 집어가지고 다러난 살인강도사건에대하야 시내각서는 물론 소관서대신서에서는 도경찰부와 협력하야 이래맹렬한수사를 계속하고잇섯스나사건발생이후 만일개월이되는금이십팔일까지 범인미체포는 물론것도어거니와 하등유력한 단서조차잡지못하엿다한다

지칠대로지친 형사대들은그래도 불굴의용긔로 목촌(木村)서장지휘하에 방중까지수사를계속중이나별로희망을갖질수업다한다

日時 十月十七日午後二時
場所 鐵路青年會、運動室
第八回 全朝鮮團體柔道大會
申請期日 十月十六日午後三時까지 同日午後八時抽籤
主催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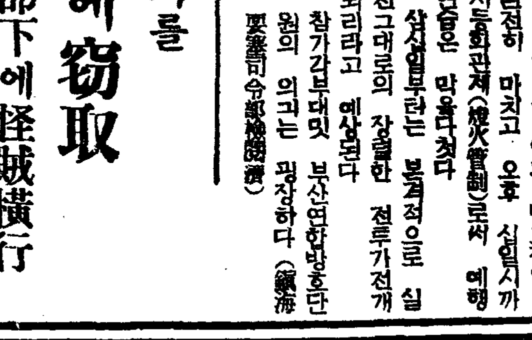
自手發明한藥品으로
癩患者施療行脚
私設療養所設置까지準備
癩病者의숨은恩人金景烈氏

천형병(天刑病)이라는 무서운일홈까지 부트린병(癩病)에걸려일생을 어둡게보내는 불상한그들을위하야 심혈을 하로가티그치료에 정성을바처온 숨은독지자ㅣ강원도 강릉군 성덕면적곡리(江原道江陵郡城德面笛谷里)출생으로 현재시내 창신정(昌信町)사백삼십구번지에 거주하는김경렬(金景烈)(三七)씨는 학교로는불과 보통학교를바게 마치지안엇스나 어렷때는 한의(漢醫)에게 커서는 독학으로 동서의학을전공하는한편으로 약학을 연구하야오든터에 특히다른것보다도리병에대한약을 전심전공하야왓다 그리하야 자기가 처방한약품으로서 대구(大邱)、선산(善山)、영덕(盈德)등지를 비롯하야삼남지방을 사오년동안을 두고도라 다니면서 리병환자중에도처지가 불상한자들에게 무료로 복약을식혀 그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현저한효력을 본사람도 만흔터인데 그는 자긔의빈궁도 돌보지안코 리병치료에감을 쉬지안는 한편으로 그의연구결정인 리병치료약「려푸라이트」를 작년오월에는 경기도 경찰부 위생과로부터 엄밀한시험을거처 그효력이 인정되여 허가까지 어덧스나 이름상품화식히지안코 못내 자수로조제한약품으로 무의무탁한 불상한 병자를차저 시료에당하고잇는중인바 그는압흐로 자력으로적으나마 료양소를 만들고자기가 연구조제한 약품을써서시료사업을 하고저 준비중에잇다고한다 (사진은 김경렬씨)

南朝鮮防空演習
明日로豫行演習終了
三十日부터本格的

【釜山에서 本社特派員 李鴻稙電話】남조선방공예행연습 (防空豫行演習) 제삼일재는 이십팔일오후한시부터 개시되여 본연습(本演習)을 이틀을압두고 긴장되여잇다。참가각부대및 관민일치의 연합방호단(防護團)은 적긔(敵機)습래가 나타나자 별안간에 부산시민은 긴장한 공긔에 싸혓다 도처에 고사포대(高射砲隊)긔관총대(機關銃隊)는 맹렬한 사격을 시작하고 각정(町)방호단은서로 배치구역안의 방호작업을완전히 마치고 오후 십일시까지등화관제(燈火管制)로서 예행연습은 막을다첫다

삼십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그대로의 장렬한 전투가전개되리라고 예상된다 참가각부대및 부산연합방호단원의 의긔는 굉장하다 (鎭海要塞司令部檢閱濟)



最高의治病劑

體毒과病毒을 驅逐하라

一瓶 金二圓九十錢

어을빈 魚乙彬

만병수정 萬病水錠

本病본병 痰痛담통 痔瘡치창 咳喘해천 骨痛골통
遺病유병 瘰癧나력 積病적병 皮風피풍 腫氣종기
滯症체증 久嗽구수 瘧疾학질 胃熱위열 吐痰토담
浮腫부종 梅毒매독 脚氣각기 喘慢疾천만증 連珠
瘡연주창 神經痛신경통 筋肉痛근육통 遺毒瘡유독창
半身不隨반신불수 腰痛症요통증 骨節痛골절통 數
溺症삭요증 楊梅瘡양매창 動脈硬化症동맥경화증
其他內外慢性病

보재약정 補材藥錠

慢性胃腸病 만성위장병 神經衰弱 신경쇠약 重病回復 중병회복 動脈硬
化 동맥경화 精力減退 정력감퇴 食慾不進 식욕부진 體質虛弱 체질허약
心臟諸症 심장제증

一瓶金二圓

金鷄納 十二구람 金一圓六十錢 二十五구람 金三圓

보재고약 화상、대독、종기 金五十錢

옴 약 두창、기타피부병 모든옴병 金五十錢

◆廣告冊子無代進呈◆

朝鮮釜山府榮町
魚乙彬製藥株式會社
電話(長)一九三九 振替 釜山五〇〇

어을빈 魚乙彬

あなたの眼を

당신의 눈을 安全地帶로!

安全地帶に!

眼疾防止의安全地帶
는「스마일」의活用으로
곳完成합시다!

눈을保護하고視力을強하게하는

スマイル

(스마일)

中村眼科院長 醫學博士 中村辰之助先生
醫學博士 仁藤隆作先生
御推獎

하로의繁雜한執務工夫를마친뒤에 마음노코한거름거러街頭로나가면 忽然히展開하는交通地獄! 이一事가現代生活에잇서서眼目의役割을 雄辯하는거십니다

人間의活動은八○%以上眼目에支配되여서貴下의眼目은不絕히極度의緊張을要求하고이씀니다。 스마일의常用에依한完壁한視力의確保가必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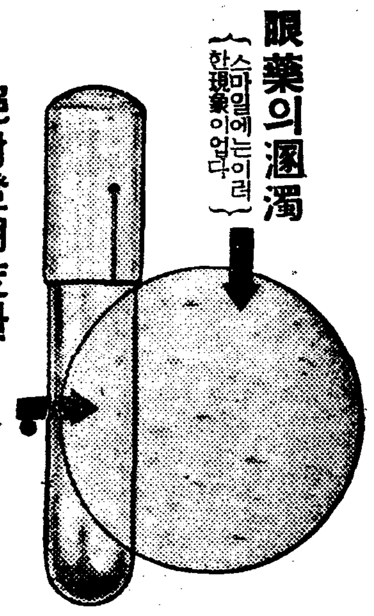
結膜炎(돌닙눈) 角膜炎(진안질)
充血(血目 삼눈) 도라홈
眼精疲勞(疲勞眼) 眼瞼炎(爛目)

(定價) 廿五錢·四十五錢·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다

스 마일의자랑은爲先其配劑의淸新한거십니다, 舊套를脫한近代科學에다가完成된新眼科藥의奏効는둘도업는新鮮하고도潑剌한거십니다。 不快한諸種의眼疾은「스마일」의點眼을 一日數回式繰替함으로써爽快하게消退합니다。

눈 이疲困하야슬때의「스마일」點眼도 또한이즐수업는爽快한感銘을줌니다。 텁텁한눈과, 시울든눈이霧散하야視力을快適하게恢復케합니다。 事務家、學生에게日常坐臥、「스마일」을이저버리지안는所以입니다。 更히「스마일」의美眼作用은너무나도有名한일입니다。

스 마일의容器는特히藥液에浸潤되지안는硬質硝子及「구쯔다벨카」의口栓을 使用하고잇씀니다 一般眼科藥이普通硝子容器가되기때문에藥液中에「아루가리」의游離를볼수잇스며挾雜物混入함에反하야「마일」의容器는硬質硝子를, 口栓도不溶解性의「구쯔다벨카」를 使用하야이쓰무로써 그憂慮도업고 恒常爽快한澄明度를保持할수이씀니다。



스마일의 點眼하는方法!

銀色뚜껑을떼고、容器를垂直으로눈에닷지안케쥐고、末端을손끗트로輕하게두들기면、一滴!一滴!爽快하게點眼된다 點眼할대容器를눈에대이면눈꼽이甁으로드러가온즉特히注意하라!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大阪

稅制改革案全貌

初年度國庫增收二億圓

地方稅二億二千萬圓減

廣田內閣의 重要國策의 하나인「中央地方을通한 稅制의整理」는그밋치는바 影響이 廣汎且甚大함으로 一般으로부터 注目되고잇든바 마츰내 右立案을어더 去九月二十二日閣議에서 國稅에關하야서는 馬場藏相、地方稅에關하야서는 潮內相으로부터 說明이잇서 諒解를어든後 大藏、內務兩省으로부터 各各그大綱을 如左히發表하얏다

稅制改革의要領 (大藏省發表)

稅制改革의目標

一、中央地方을 通한 稅制의 根本的改革을 行하야 國民租稅負擔의 均衡을圖할것
(1) 地方的負擔의 不均衡을 是正할것
(2) 動產과不動產과의間의負擔의 不均衡을 是正할것
(3) 法人과個人과의間의 負擔의 不均衡을 是正할것

二、租稅收入의 增加를 圖하야서 財政의 基礎를 確立하는 同時에 現代의 國費를 漫然 後代國民의 負擔에 남김과如한 일이업도록할것

三、中央地方을 通하야 彈力性잇는 稅制를 樹立할것

整理改革의方針

一、國稅

(一) 直接稅體系는 所得稅를 中樞로하고 收益稅及財產稅로서 補完할것

(二) 所得稅에 左의 改正을 加하야 그整備擴充을 圖할것
(가) 增徵의 比例를 比較的 만케할것
(나) 個人에比하야 法人을 重課할것
(다) 第二種所得의 源泉課稅는 이를 廢止하고 第三種所得으로서 綜合課稅할것 但 當分間國債政策上 國債及預金의 利子에 對하야서는 納稅義務者의申請이 잇는境遇에 限하야 利子支拂의 際 課稅함을 得하는것으로할것

(三) 所得稅를 補充할 現行收益稅制度는 國稅인 地租、營業收益稅及資本利子稅와 地方稅인 家屋稅로서 組成되는바 家屋稅를 地方稅로 存置함은 理論上實際上適當치안흠으로 家屋稅는 이를 國家에 移管하야서 收益稅制度의 整備確立을 圖할것

(四) 所得稅의 補完稅로서 收益稅만으로서는 아직 補完作用에 缺하는바가 잇슴으로 第二次的補完稅로서 輕微한 財產稅를 創設하야서 直接稅의 體系를 完備하는同時에 稅制에 彈力性을 付與할것

(五) 負擔의 不均衡을 是正하는同時에 收入의 增加를 圖키爲하야 資本利子稅及相續稅에 對하야 相當한 程度의 增徵을 行할것

(六) 間接稅에對하야서는 所謂 社會大衆의 生活을 脅威치안을程度의 增徵에 그칠것

(七) 負擔의 均衡을 圖하는 同時에 彈力性잇는 稅制를 樹立하기 爲하야 새로 流通稅로 有價證券移轉稅及 賣上稅를 創設하야 輕微한 課稅를할것

二、地方稅

(一) 負擔의 不均衡은 特히 地方稅에잇서서 顯著함으로 現行地方稅制度에 根本的의 整理改廢를 加할것

(二) 國稅에對한 付加稅는 如左히할것
(가) 地租、營業收益稅及家屋稅에對하야서는 道府縣及市町村모다 付加稅를 徵收함을 得하는것으로할것
(나) 所得稅에 對하야서는 道府縣에 限하야 一定限度 付加稅를 徵收함을 認하고 市町村의 所得稅付加稅는 이를廢止할것
(다) 資本利子稅及 相續稅에 對하야서는 付加稅의 徵收를 認치안을것

(三) 各收益稅(資本利子稅를 除함)에對한 付加稅率은 이를一定限度로 統一하고 特別한境遇를 除하外 制限外課稅를 認치안을것

(四) 雜種稅中에는 不適當한것이 만흠으로 그種目及稅率에 對하야 整理輕減을 行할것

(五) 戶數割은 課稅方法이適正을 缺할뿐아니라 그負擔이 極히 重하고 國民租稅負擔不均衡의 根源이되어잇슴으로 所得稅增徵과 財產稅創設의 機會에잇서 이를 全廢할것

三、地方財政의 調整

(一) 地方團體의 財政을 調整하기爲하야 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를 確立할것

(二) 地租、營業收益稅及家屋稅의 本稅는 이를 市町村에對한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의 財源으로할것

(三) 市町村立尋常小學校敎員俸給費中 現在市町村負擔分은 이를 道府縣의 負擔으로할것

(四) 資本利子稅의 全部及所得稅의一部(本稅에對하야 約二割程度를 付加徵收한額)을 道府縣에對한 地方財政調整交付金의 財源으로할것

整理改革의要綱

國稅

一、所得稅

(一) 第一種所得稅(附加稅를包含)는 現在負擔額에 對하야 八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二) 第二種所得의 源泉課稅를 廢止하고 綜合課稅(一定率의 控除를 行함)로 改正할것

(三) 國債利子의 免稅를 廢止하고 綜合課稅(一定率의 控除를 行함)를할것

(四) 貯蓄銀行及 產業組合의 定期積金을 除한 貯金及 預金(元金二千圓을 超過하는것)의 利子에 對하야 綜合課稅(一定率의 控除를 行함)를할것

(五) 當分間 國債政策上 國債、預金及 貯金의 利子에 對하야는 納稅義務者의 申請이잇는 境遇에 限하야 利子支拂의 際에 課稅함을 得할것

(六) 第三種所得稅(附加稅를 包含)는 現在負擔額에 對하야 平均三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但 그程度는 少額所得者에 輕하게 多額所得者에 重하게할것

(七) 第三種所得의 課稅最低限 千二百圓을 千圓으로 引下할것

株式所得의 四割控除를 廢止하고 株式所得에 要한負債의利子를 控除할것

二、地租

(一) 地租의 稅率은 現行法대로하야 改正하지안흘것

(二) 少額地租免除의 範圍를 相當한 程度로擴大할것

三、營業收益稅

(一) 個人營業收益稅의 課稅最低限 四百圓을 六百圓으로引上할것

(二) 法人은 現在負擔額(附加稅를包含)에 對하야 一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三) 個人의 納稅金額千圓以下의 部分에는 稅率을 引下하고 三千圓을 超過하는 部分에는 多少의 引上을할것

四、資本利子稅

(一) 國債利子의 稅率은 現行法대로하고 그他는 相當한程度의 引上을할것

(二) 貯蓄銀行及 產業組合의 定期積金을 除한 貯金及 預金(元金二千圓을 超過하는것)의 利子에 對하야도 課稅를할것

(三) 日本國人의 所有하는 外貨債에 對하야 相當한程度의 課稅를할것

五、家屋稅

現行地方稅 家屋稅를 나라에 移管하고 國稅及 付加稅를 通하야 相當한程度의 課稅를할것

六、相續稅

(一) 十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二) 相續財產 一定額以下의 家督相續의 境遇에잇서서 家族控除의 制度를 設할것

七、酒稅

(一) 酒類에 對하야는 各酒類의 負擔均衡에 留意하야 平均二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二) 酒類의 法定納期制度를 改正하고 庫出課稅制度로 改正할것

(三) 酒精及 燒酎에 對하야 專賣制度를 採用할것

(四) 麥酒의 稅率은 六割程度의 引上을할것

八、織物消費稅

(一) 一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二) 絹及毛의「메리야쓰」「레―스」「메르트」에 課稅할것

九、砂糖消費稅

(一) 二割程度의 增稅를할것

(二) 飴에對하야 課稅를할것

十、取引所稅

相當程度의 增稅를할것

十一、登錄稅

不動產에 對하야 相當程度의 減稅를할것

十二、鑛業稅·印紙稅

相當程度의 增稅를할것

十三、財產稅

(一) 法人에잇서서는 拂込資本金及 立金의 合計額(繰越缺損額控除)에 對하야 千分之一五의 課稅를할것

(二) 個人에잇서서는 三萬圓以上의 財產(負債控除)에 對하야 千分之一의 課稅를할것

(三) 財產評價에關한 規定을 設하야 評價의 適正公平을 期하는 同時에 不動產課稅의 算定도 均衡을 期하고 이規定을 相續稅及登錄稅에도 適用할것

十四、賣上稅

(一) 賣上額에 對하야 千分之一의 課稅를할것 但 百貨店에 對하야는 千分之三으로할것

(二) 賣上金 年額三萬圓以上의 者에만 課稅할것

十五、有價證券移轉稅

有價證券의 移轉에對하야 國債萬分之五、그他千分之一의 課稅를할것

十六、揮發油稅

揮發油에對하야 一카론 五錢의 稅率로서 課稅할것

地方稅

一、左記의 諸稅는 廢止할것
(一)戶數割
(二)市町村의 所得稅付加稅
(三)家屋稅

二、左記의 諸稅는 輕減할것
(一)營業稅
(二)雜種稅
(三)特別地稅
(四)各收益稅付加稅

改革에依한收入增減關係大要

改革에 依한 收入增減關係大要

(一) 中央地方을 通한 稅制改革을 行한結果 地方稅에잇서서 初年度 約二億二千萬圓、平年度 約二億一千九百萬圓의 減稅가되는것

(二) 右에 因한 地方歲入의 缺陷은 그金額을 地方財政調整交付金으로써 補塡할것

(三) 國庫의 收入은 初年度 約二億圓平年度 約三億圓의 增加를보는것

地方財政及稅制改革要綱 (內務省發表)

地方稅制의改革

地方稅制의 改革은 國家의 稅制改革을 通하야 國民負擔의不均衡을 是正하는것을 目標로하고 特히 農山村住民의 負擔輕減과 社會政策的 廢減稅을 圖하려는것、地方稅制改革에 依한 地方稅의 減收는 初年度 約二億二千萬圓、平年度 約二億一千九百萬圓에 達할 豫想이다

地方稅制改革의要領

(一) 所得稅에 對한 附加稅는 道府縣에 對하야서만 이를 認하고 또 그賦課率은 이를一定限度로 限定하고 制限外課稅를 하지안는다(大體本稅의一割로할豫想)

(二) 家屋稅를 國稅로 移管하고 이에對하야 道府縣及 市町村으로하여금 附加稅를 賦課식힌다 家屋稅의 國稅移管은昭和十三年度부터 이를 實施할 豫想이나 現行家屋稅及同賦課稅의 總額에比하야 移管後의 家屋稅及 同附加稅의 總額은 大體二割程度의減額을 보리라한다

(三) 地稅、營業收益稅及 家屋稅에對한 附加稅의 賦課制限率은 各稅를 通하야 均一(道府縣及市町村을 通하야 合計大體 本稅의 十三割로할豫想)히하며 特別한 境遇를 除한外에 制限外課稅를 認치안흠

(四) 土地의 賃貸價格의 改正과 附加稅賦課率의 引下에因한 地租附加稅(段別割로 一般經費때문에 地租附加稅에 代하야 賦課하는것을 包含)에 對하야는 大體四割程度 特別地稅及 同附加稅에 對하야는 大體五割程度의 減稅가 될豫想이다

(五) 小商工業者의負擔輕減을爲하야 營業稅及하同附加稅에對하야 大體五割程度의 減稅를할豫想이다

(六) 主로서 社會政策的見地에서 雜種稅及同附加稅에 整理를加하야 大體總額의 二割程度의 減稅를할 豫想이다

(七) 戶數割은 이를廢止함

地方財政調整制度의確立

地方稅制와아울러 恒久的地方財政調整制度를 創設하야 地方團體의 財政確立을 期하려한다

(一) 所得稅의一部(大體本稅의二割程度에 相當한額)及資本利子稅는 이를 道府縣의 財源으로서 交付함

(二) 地租、營業收益稅及家屋稅도 이를 市町村의 財源으로 交付함

(三) 市町村立 尋常小學校敎員俸給費는 이를 道府縣의 負擔으로함

現在地方稅總額

昭和十年度地方稅(單位百萬圓)

區別	稅額	內譯 道府縣	內譯 市町村
地方稅總額	六九九	二七一	四二八
地租附加稅	一一二	六九	四三
所得稅附加稅	六八	四九	一九
營業收益稅附加稅	八四	三八	四六
家屋稅及同附加稅	一〇七	四〇	六七
特別地稅及同附加稅	一四	九	五
營業稅及附加稅	一四	七	七
雜種稅及同附加稅	一〇六	五四	五二
戶數割	一七七	―	一七七
其他	一七	五	一二

現在市町村立尋常小學校敎員俸給總額

昭和十年度(單位百萬圓)

國庫負擔金	八五
市內町村負擔	八三

慢性衰弱恢復의秋

胃腸榮養

錠劑 わ와 か가 も모 と도

榮養促進劑의活用

衰弱恢復의目的으로、아미노酸劑비타민劑鐵劑等으로 使用하는것은 곡疲弊한農村에多少의 物資를供給하는것가튼効果밧게는업다 가장조흔農村救濟法은 農村의 產業組織을根本的으로 改良하야自己가物資를만드러내는힘을給與함에잇스나 身體의衰弱을回復함에는 根本的組織에 活力을주어 全身의生活機能을强化하고

흘로 榮養을攝取하는 힘을給與하는것이最上의 方法이다、活性헤ㅣ뤠菌劑『錠劑わかもと』는 即그特長으로하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으로써 疲弊한 生活機能을 改造하는榮養促進劑이다

윌리암하베이 WilianHavey (1578—1657) 英國켄트州에서나서後에 야곱一世와 찰쓰一世王의侍醫가되야 醫術에對하야 研究하고心臟의 機械的作用을發見하엿다이研究에依하야 現近世生理學의 基礎가되엿다고하여도過言이아니다 血管內注射法의 進步를하게한것도하ㅣ베이의 功績이라고할수잇겟다

먹는것은모도맛이조타

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을開始하면 곳顯著히食物이맛이나고 食慾이增進한다、이것은 即消化液의 分泌가旺盛하게되여 胃筋은活潑한運動을開始하고食物을바더 消化하는準備가된證據이다

榮養增進의 第一義는 或種의榮養素를給與하는것이아니고 榮養素全般을 偏頗가업시 攝取하게하는것은 말할것도업고 모든食物을好不好가업시 攝取하고 그中에서 必要한 成分을 消化吸收하는能力을 具備치안어서는아니되지만 『錠劑わかもと』는 이러한 能力을給與하는食物藥이다

倦怠感은解消

慢性衰弱者特히 肺結核性衰弱者의特長인 倦怠感은結核菌이 體內에잇서서 出하는毒素에依하야 各組織과機能이 侵害되기때문이라고한다 活性헤ㅣ뤠菌劑『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면 榮養이顯著히놉하지고 全身의纖細胞에

活力이供給되여 次次充實한 健康感이倦怠感과박구이게되지만 이것은 京都帝國大學微生物學教室의 研究報告에도잇는바와가티 『錠劑わかもと』의 主菌이體內의白血球를增加식혀서 그에依하야 倦怠感의 根本原因인結核菌을喰盡하고 그勢力이弱해지는것도賦與되는힘이잇는까닭이다。

病弱體가更生함

錠劑わかもと」의 眼目으로하는바는 胃腸病에잇서서 消化不良 胃酸過多常習便秘또結核에잇서서 發熱盜汗等의 症狀을 緩和하는것이아니고 그症狀이이러나는 根本的原因인 組織細胞의 病憊를 恢復更生식힘에잇다。

近代의 醫聖윌히요博士의 細胞病理學說에依하야 밝힌바와가티 此等病의種種의病狀은 要컨대身體를組織하는細胞의 疲弊或은無力에서생긴 現象이므로『錠劑わかもと』의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疲弊細胞에活力을 給與하면種種의 症狀도漸漸減退하야 病弱體도健康體가될수잇다。

루위바스톨 Louispster (1822—1895) 佛國近代의 大化學者大思想家大醫學者이엿다그功績의主要한것은 醱酵의原理를研究하야 헤ㅣ뤠菌의存在를發見한것 傳染病菌의 存在를發見한것 及豫防接種法의應用을發見한것等이다

胃腸組織을強靭케

慢性衰弱에陷한분의거이모도는胃腸虛弱者이고胃腸虛弱者의거이모도는胃腸組織의無力狀態에陷한분이다 從來그러한虛弱胃腸에對한療法은될수잇는대로 消化하기쉬운食餌를攝取하는 同時에消化力을補助하는藥을給與하엿지만 今日進步한醫學으로서는오히려積極的으로榮養에豐富한 食物을

各種類에亘하야 給與하고一方『錠劑わかもと』와가튼胃腸의組織細胞에活力을 給與하는藥을써서 從來에 오직保護의域을떠나지안흔療法에서 一步進步한無力狀態에떠러저잇는 胃腸組織을 强靭케하는 方法을取하게되엿다。

盜汗도發熱도減退

結核性衰弱때문에 每夜盜汗이잇고 每日輕微한 發熱로煩悶하는분은 活性헤ㅣ뤠菌劑『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야 次次그症狀이減退하고 다음에는 거이이저버리는것은珍奇한것이아니지만 이것은『錠劑わかもと』가갓고잇는 細胞原形質賦活作用에依하야 全身의組織特히 胃腸의 組織이强해지고 榮養이만허저서

生活力이 旺盛해진結果 結核菌에 破壞된患部에 새로운組織이 生成되는同時에 一方全身에 넘치는 抗病力때문에 次次結核菌이壓迫되여 그活動을停止함에 이른結果이다。

一瓶每に添付してある

教育掛圖寄贈引換券

가까운小學校에寄附하십시오

小學校에서 必要한教授用掛圖가조흔것이적고잇서도費用의點으로備置할수업는點에鑑하야幾分이라도 小學教育에寄與키爲하야 わかもと 本舖榮養と育兒の會에서 我國小學教育의權威로된 教育資料會編纂의優秀한教授用掛圖一百萬枚를 全國小學校에寄贈하게되엿다

『錠劑わかもと』愛用者여러분은一瓶마다添附된『掛圖寄贈引券』을 一枚라도 버리지말고最近小學校에寄附하기를바란다 小學校에서는이券을모아 東京芝公園十一號地 教育資料會로 送付하면 規定枚數에應하야請求하는掛圖를 寄贈한다

藥價低廉・壹圓六拾錢 (三百錠入)

三百錠は大人は廿五日量・十歲前後の兒童は約四十日量・五歲前後は五十日量 三歲前後は六十日量に當る。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振替東京一七〇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一五番

驚異的両大雜誌「朝光」과「女性」

愛誦하는名詩薰香 讀書三昧의深奧境

思索하는가을에읽을好讀物!

朝光十月號斷然人氣!!

유리판가티 맑은 하늘엔 상냥한 가을바람이 한껏 심원(深遠)한사색(思索)의 세계로 사람을끌고갑니다 프르고 놉게 개인 저무한대한하늘! 거기는 자유로운시혼(詩魂)이 떠돌아 황금물결 지는들과함께 인생의 결실을 지우려합니다。이때 화도는 책상을대하여 사색과독서에 잠길때라 조광(朝光)十월호는 가을향기 무르녹게 편즙을하엿습니다。가을의 독서삼매경(讀書三昧境) 가을의 애송시(愛誦詩)、가을바람에 부치는 편지는 모-두 책과 친하고 사색에 잠기는 씨-즌적인 글로서 량주동(梁柱東)씨의『多樂樓夜話』윤일선(尹日善)씨의『夜深人靜坐觀心』한룡운(韓龍雲)씨의『暮鐘晨鍾의無我境』고유섭(高裕燮)씨의『靜寂限神의世界』는 모-두 독서에대한 깁고 자미잇는 글입니다 더구나 리헌구(李軒求)씨 백철(白鐵)씨 오일도(吳一島)씨의 가을의 애송시는 가을날 울프든 명시(名詩)의 리즘을다시 한번 우리가 되푸리해도 조흘것입니다 리효석(李孝石)씨강노향(姜魯鄕)씨 안회남(安懷南)씨의 가을바람에 부치는편지도 또한 가을바람부는 이철에 자미잇게 읽을수잇는글로써 모-두가 가을하늘 별반작이는 밤길에 외우고 단일수잇는글들입니다 읽으십시요 향상빗나는 아츰빗조광(朝光)을! 그리하여 글에 주린 조선의 대중은 이것으로우갈을 업A하야 참된 문화인의 수준이 되여야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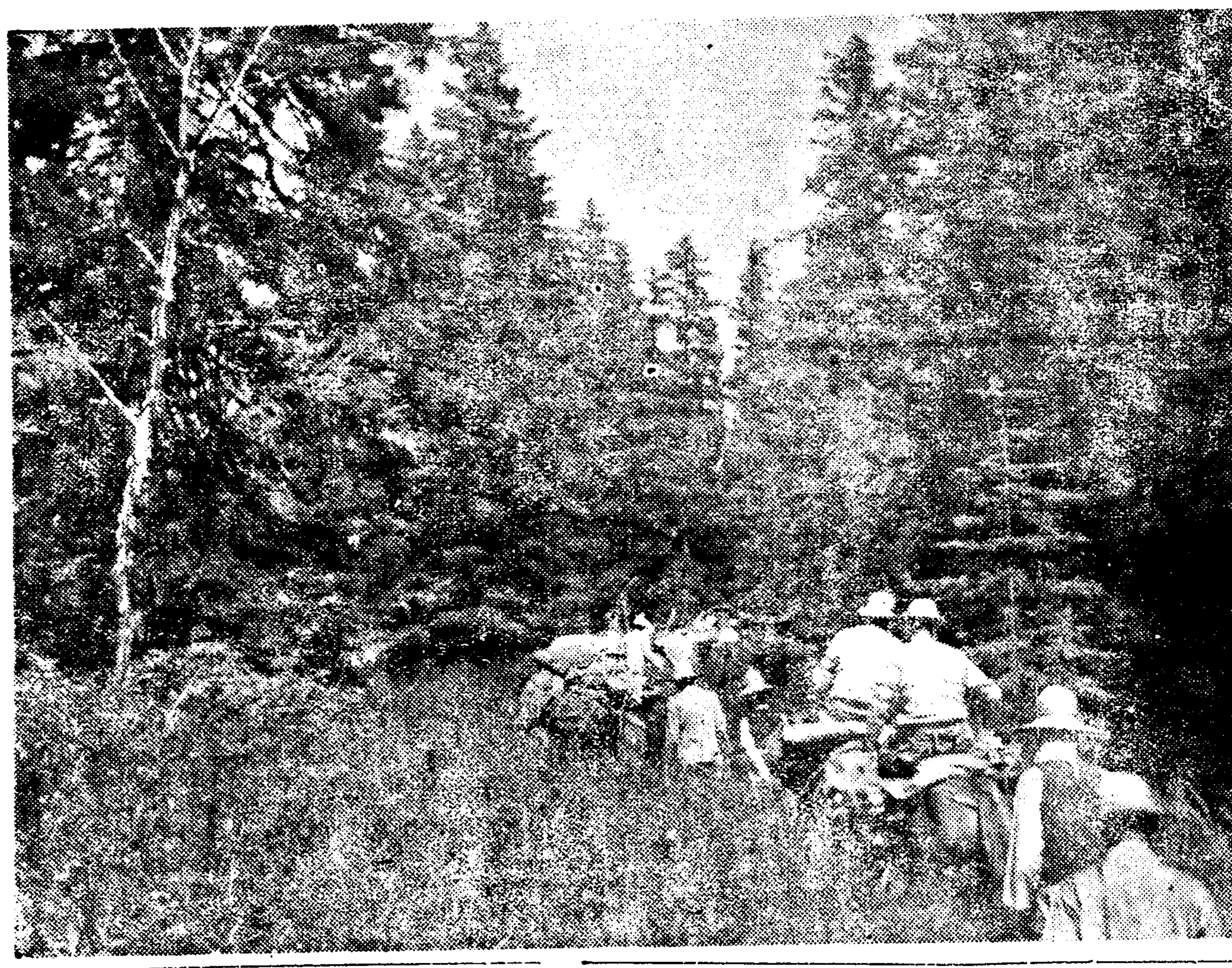
新京入城 燈火稍可親

世界文化의現動態 米·蘇·中·三國打診

그들의문화운동은어떠케움직이나?

社會發展의母胎檢討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향상식히기위해서 해외제국의 문화운동선을 도라보는것은 문화의교호관계보담도 좀더 선진문화를 섭취하려는데 잇서서 귀-다란의의를 갓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정일형(鄭一亨)씨의「아메리카문화운동론」을 위시하야 한청심씨의 중국(中國)의한자폐지운동 일보생(一步生)의 쏘베-트 연방에 잇서서의 국민보건운동에대한 재논문은 확실히 그사회문화동태를 엿볼수잇는 중요한논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나라의 문화동태를 여러가지 각도로 관찰한이논문에 대하야 누구나 한번읽어야할 의무가 잇는중요한것입니다。



白頭山書報의一部

特色잇는表紙와 美麗한書報特輯

조광잡지는 그내용이나 편즙형식에잇서서 단연 조선잡지계를 리-드하고 잇거니와 이번 표지와 화보는 특별히 아름답고 화려한것입니다 더구나 백두산처녀지화보와 미술가의 아트리에풍경 시월에상연할영화화보등은 참으로자미잇게꾸미엇습니다

寫眞은三南水害慘景

朝光十月號目次

◇가을의讀書三昧境
多樂樓夜話……梁柱東
夜深人靜坐觀心……尹日善
暮鐘晨鍾의無我境……韓龍雲
靜寂限神의世界……高裕燮
◇가을의愛誦詩
가을·落葉·孤寂……李軒求
「옷시언」의노래……白鐵
가을·離別·그리움……吳一島
◇가을바람에부치는편지
靑春의記錄……姜魯鄕
生活의記錄……李孝石
못向한그대로……安懷南
秋夜長
◇表紙……安夕影
畵報
『아-트』美術의秋(아트리에카메라探訪)『都相鳳氏』『崔禹錫氏』『張勃氏』『李用雨氏』『鄭燦英女史』崔承喜氏의舞踊研究所建立
報
『그라비아』白頭山畵報『神武城을떠나서無頭峰을向한本社探險隊』『無頭峰에서바라보는白頭山』『豆滿江의물』『白頭山岳偵峰』『豆滿江流筏』其他映畵畵報、베니스의베니스노래、언덕의孤松、끌고다의언덕、國際間諜
善、李光洙、李箕永
文藝
三南水害地踏查記(暗行御史手記)……D御史
社會와藝術에關聯하야……金英根
全鮮的水災와治山治水의急務……咸尙勳
漫文漫畵全大砲……崔永秀
漫文漫畵거즛말의떼파-트……李周洪
文壇消息
海外異聞秘聞
蘇聯『오프레』運動과國民保健……一步生
中國의漢字廢止運動……韓靑心
亞米利加文明縱橫觀……鄭一亨
가을의探勝處(내가가고십흔곳)
金綴根、金福鎭、李泰俊、李石薰、李一、李孝石、高義東、安懷南、姜在鎬、李秉岐、高裕燮、金煥泰、姜敬鄕、金鴻鳳、李箕永、金東鳴、林和、李軒求、欄但老、李克魯、方鍾鉉、金尙鎔、金鳴
◇◇◇創作陣◇◇◇
短篇小說 장마……李泰俊
中篇小說 未完成……朱耀燮
中篇小說 川邊風景……朴泰遠
短篇小說 貞操……金裕貞
長篇小說 愁雨……安夕影
長篇小說 春夢……方仁根
探偵小說 疑問의毒死事件……金煥泰
中篇小說 모밀꼿필무렵……李孝石
短篇小說 明日……蔡萬植
家庭과音樂
피아노音樂……朴慶浩
가을의西洋料理……宋玉璇
가을의化粧秘訣……吳淑根
新秋의婦人服……任貞爀
가을의小兒衛生……張文卿
兒童과誘惑……金昶濟
科學
朝鮮人의血型……崔(?)
血液型에對하야……鄭(?)
實話 男性恐怖時代……獨孤山人
映畵監督 스턴버그會見記……安碩柱
民俗과野談
봉오구실……申鼎言
妓生의特色……白花郞
文學上의地方主義問題……林和
玉山祠訪古錄……白(?)
哲學的理念과그現實行程……金(?)
異國風物詩……高鳳京
◇亦一詩話……洪碧初
△晴讀雨耕(心頭雜草)……金石松
△佛敎의原理……權相老

治山治水의急務

을축년 대수재이후 오늘날까지 년부년한 한발과수해로 인하여 조선의산하는 이글이글 볏에타거나 탁랑이칭출어 그 재해는 년년히 수어에 달합니다。이는 결국 치산치수(治山治水)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서 한상훈(咸尙勳)씨의 치산치수의급무(治山治水急務)라 론문은 현하 조선의 커-다란 문제를 예리하게비판하엿스니만큼 가장 권위잇는론문으로 일독의가치가 상당하다 더구나 이론문은 수해의려사적고찰로부터 현재 수해의 상황을 엄밀히조사하여가지고 당국에대한 정책을 여실히비판하엿스니만큼 이는 더욱현실문제로써 가장적절한것으로 누구나한번 이론문은 읽어야할것이다。

濁浪에슬어진山河

災害地눈물의踏査!

暗行御史의苦心手記

그리고 본사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의수해지(水害地)답파과사는 눈물어린 그광경이 눈아페전개되는듯 쓰라린 동포들의 치위와 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애처러운 정경이 빼저린붓끗으로 쓰여젓다 락동강칠백리가모다탁랑으로되여 니해(泥海)로 만들고 산이문허지고 집이떠나가고 인축이 사상되야 그야말로 아비신산한 긔오가튼 광경을 전개식힌 이 눈물의답사기는 누구나동포의사정을 알려는이는 꼭한번읽어야 할것이다 이것도 잡지『朝光』十月호에 실리엇습니다

「劇研」春香傳公演 「朝光」愛讀者優待

各等十錢式을割引提供

廿九、卅兩日府民館서

시내 연사정 태화녀자관내에잇는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에서는 금 이십구일 삼십일 양일간 매야여섯시반(三十일은낫한시에도잇다)부터 태평통 부민관(府民館)에서 창립오주년기념으로 조선고전문학의정수 춘향전(春香傳)을 류치진씨각색으로 상연하게되엿는데 더구나극예술연구회의 진실한 량심적입장에서 상연하는것인만큼 누구나 보아둘필요가 잇는것이라하여 인긔는더욱 놉다고합니다 이리하여 본사출판부는 이런 훌륭한 연극을 독자제씨에게 저렴한 입장료로 보히고저 주간(晝間)(三十일낫한시에만봉용)권 사십전균일을 삼십전균일로 야간권(廿九、三十일오후칠시반)일반 오십전을 사십전으로 학생사십전을 삼십전으로 할인하기로 하엿습니다 이할인권은조광(朝光)시월호 목차속에 인쇄되여잇슴으로 누구나 조광애독자는이것을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深秋의創作陣 無慮九篇의豪華版

조광시월호에는 창작소설만아홉개가 실리엇습니다。리태준(李泰俊)씨의 아름다운 필치로된『장마』주요섭(朱耀燮)씨의 자미잇는 중편소설『미완성』리효석(李孝石)씨의 아련한소설『모밀꼿필때…』김유정(金裕貞)씨의 솜씨잇는『貞操』박태원씨의 능숙한 중편천변풍경(川邊風景) 채만식(蔡萬植)씨의 자미잇는 중편『명일(明日)』안석주(安碩柱)씨의 영화소설(愁雨) 김환태(金煥泰)씨가 번안한아기자기한 손에 땀을쥐이게하는 탐정소설(疑問의毒死事件)은 모-두가 소설로서 독자의심금을울릴것뿐입니다 잡지하나에 소설이 아홉개나넘는다는것은 조광이외에는 차저볼수업는일로 누구나 이자미잇는소설에 조광인기는 더욱노파갑니다

石松의心頭雜草 『晴讀雨耕』의哲學味

매월조광지에 심두잡초를쓰시는 석송은 이달에는 아-조철학미가기픈『晴讀雨耕』이란 수필을쓰셧다 이제 그일절을 인용하면 「……晴에耕하고 雨에讀한다함은 귀에걸면귀거리 코에걸면코거리의 生活이니 日氣를 보아雨裝을準備하는 가장世俗에恰暢한 生活方式이아닐가? 大勢에順應하거나 機會에迎合하는것이全部가나뿌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 사람다운點은『주사대』잇는 生活를함에잇다……晴耕雨讀은사람마다의 所望이다! 그러치만 정말값잇는 晴耕雨讀은 저마다할수가잇는냐……」 여기石松의 最近心境의哲學味를알수가잇다

洪碧初先生의 名文「亦一詩話」

오래동안 침묵을 직히고잇든 벽초 홍명희(洪命憙)선생이 역일시화(亦一詩話)라는 제목으로 고려(高麗)이후 한시(漢詩)와 시화재료(詩話材料)를 한권의시서에서 모하 짜내인 이글은 오래날가려 문장도가서지안흔오늘날 적지안흔 귀중한 글입니다 이제그서두만을 소개해보아도 「高麗忠宣王이 元에가서잇슬때 萬卷堂을 열어노코 詩人文士를 引接하야 閻復、姚燧、趙孟頫、元復初、張養浩等 有名한 學士들이 王의門下에 出入하엿다 어느날王이 鷄聲恰似門前柳란 詩를지어 여러學士가 用事出處를 물은즉 王은 대답을못하엿다 이때王을 뫼시고잇는 李齊賢이 나서 대답하되 우리東人詩에 屋頭初日金鷄唱 恰似垂楊裊裊長이란 一聯이잇스니 鷄鳴의軟弱으로 柳條의 纖細를 比한것이니 우리殿下의詩는 이뜻을轉用하신것이다 그리고또韓退之琴詩에 浮雲柳絮無根蔕란句가잇스즉 古人도聲音을 柳絮로比하지아니하엿는가 여러學士가 李齊賢의말을 듯고 모다讚歎不已하엿다 李齊賢이 蒼卒間詭辯으로王의窘急을 救한것이 文章華國이라稱할만하다하고 李德懋淸脾錄에 적히어잇다」 이것만보아도 얼마나 이글이 苦心해서 짜낸것을알수잇다

朝光 十月號

定價三十錢

朝鮮雜誌王朝光의姉妹誌! 雜誌界에나타난金孔雀

女性

十月号今日發賣

朝鮮에서第一가는 이 燦爛한女性雜誌는 누구나 읽지안을수업다

秋夜長긴긴밤에 이滋味잇고 實益잇는 女性을 누구나 읽으십시오!!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

定價 十錢 送料一錢

十一月부터는大增頁斷行

華麗燦爛한이內容이編輯 速히注文하십시오

女性十月號目次

거짓말의心理……李光洙
十三道女性巡禮(咸鏡道篇)……李軒求
家庭太平記 醫師金鐸遠氏家庭
◇個性의美……金(?)
美人과言語美……洪鍾仁
◇世界的女流音樂家群像……金(?)
◇在東京우리新進樂人의人物帖……(?)
性生理學……鄭槿陽
새人間과새貞操觀……南萬民
가을과女性……安夕影
制服의處女葬送悲曲……S生
◇우리學校자랑(中央保育篇)
◇純情의편지……李孝石
◇그리운동무에게……毛允淑
◇幸福을듣진情熱……金裕貞
◇幸福……李箱
◇내안해와論文……金嘉鎭(?)
文人과가을……주요섭 外十二文人諸氏
◇夏休日記抄……尹榮(?)
◇秋期兒童服……郭信愛
◇우리집食卓의한가지자랑……任貞赫
金永愛
◇畵報
世界女性展望
女性界消息
모던趣味帖
家庭메모
◇百合花……吳一島
◇詩·明朗……李恒(?)
◇詩·영의에게……毛允淑
創作 鐵路……李泰俊
創作 省墓……宋影

江原道中心의豪雨

【仁川】 수마의작희는 긋칠줄을 몰으고 하늘중히게여야할가을에여 시호우를나리고 강원도중심의 수해의정도는 작지에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제인천측후소의방문에듯건대 남은오늘로서 개일듯하나 강릉(江陵)의호우는 이십칠일이일간에 정화상태 십삼"미리"의 호우가 초다저 근래에보기 드문호우에서더하다 그러나 금월오일 현재경조선 각지는 게이에잇고 용기만이 비를나리고잇다는데 작이십칠일오전까지로부터 이십팔일오전까지의각지우량은다음과갓다한다 ▲仁川三〃미리〃 ▲京城 四〃미리〃 ▲木浦 四〃미리〃 ▲〃미리七〃 ▲元山一五〃미리〃 ▲城津 七〃미리〃 ▲江陵一〇三〃미리〃

纛島行交通의要所 軌道架橋改修要望

如干의出水로頻繁히交通斷絶은大問題

會社側의善處할問題

동대문밧게서 뚝섬까지 통하는 경성궤도차는 한강물이 약간만 부르면 그만 살고지다리(纛橋)부근일대가 물에 잠겨서 교통이 막히게되여 시내에서뚝섬사이의 교통은 막히게된다 바로 서울근교인 곳에서 이와가리 결핍하면 궤도가 물에잠겨서 차가 통하지못하게되는것은 궤도회사 당국자의 그 시초의 설계가 물의전하엿기때문인 모양인데 이에대한 보강책을 강구하야 궤도의 언덕을 떠노피지안코면 안될것이엇에도 불고하고 그회사에서는 여태껏 아모 방책을 강구하지안코므로 일반 리용자는 자못불평이 만타한다

遊園地紫霞門박 新道路促成氣運

大院君時代渠溝改修면容易

住民의運動漸具體化

부내 청운정(淸雲町)막바지로부터 부암정(付岩町)방면으로창의문(彰義門)을 통하는길은 속칭자하문밧이라는 협준한 고개가잇서 어때문에 도로개수도힘들어 창의문밧주민들에게 커다란 숙제거리가되여온터인데 근래에교외로 주택지를새이 만흔이때에겸하야 전긔부암정외에도 홍지정(弘智町)신영정(新營町)등 세동리가 지난번에 고양군으로부터 경성부로 편입되고 장차는 그일대가 풍치구요 또 주택지대로 리용될것임으로 하로밧비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은 자하문밧발전을위하야 긴급한문제가되여잇다 그런데 청운정 백운장(白雲莊)이라는 목리집아프로부터 창의문까지는 겨우 오백『미돌』 내외밧게 안되는 평탄한거리로서 대원군(大院君) 집정시대에 대원군이 풍수설(風水說)에 의하야 인왕산(仁旺山)술기에서 흘러나리는물을 경복궁(景福宮)으로 바더드려서 현재총독부뒤뜰에잇는 경회루(慶會樓)연못에다가 할류시키면 대원군자신이 일평생세도를부릴수잇스리라하야 현재 창의문으로올라다니는 언덕과병행해서 큰개천을팟든 웅덩이자리가 아직도현저하게남어잇서 만약부당국에서 창의문밧의발전과 및 그쪽주민들의교통상 편의를 위하는성의가잇다면 그개천자리에 토관(土管)을묻어올라간다면 막대한경비를드려 현재가티협악한길을 굴착하는노력의십분의일도안드리고도용이하고 순편하게 부에서 발표한 십오미돌길을 내이게되리라는것이다。그리하여 창의문밧 주민들은 이점에 착안하고 최근 그실현을 꾀하고저 열망하고 도합부유지는 긴급한다른 방도도 연구중에잇는 모양으로 어떠면 그실현도과히 어렵지안케될뜻도십허 창의문으로 통해서 세검정(洗劍亭)쪽으로가는 신설도로는 의외로 물원가실현될가망이 잇다 만일이 도로가 속히개설된다면 자하문밧의 발전도 속하러니와 세검정방면은 부민의유원지로 현재의면배되는 명소가될것으로 긔대되고잇다

電車에서跳降負傷

이십칠일 오후아홉시경 황금정(黃金町)륙정목 십팔번지 압길에서광히정(光熙町)이정목이십일번지 석영재(石永在)(三二)가 전차에서 뛰여나리다가 그만잘못되여 입술과 오른편팔에 약일주일간치료를 바터야할 상처를밧고 부민병원에서 치료중이다

開城商業學校 增築도不遠實現

各方面人士가寄附

【開城】 부내개성상업학교(開城商業學校)는 작년 구월에 화급중설의 실현을 보게되엿슴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창립당시 그대로 엇기때문에 협착하야현재는 특별교실、표본실까지 사용하는 형편으로 다대한곤란을 늣기게되여 동교후원긔성회(後援期成會)와 권부윤(權府尹)등의 헌신적 노력으로 증축비그부를 권유하기에 제일선에 출마해서 활동해섯든바 어여갈져한 삼정물산 경성지점 (三井物産京城支店)은 일천원을、또는 한성은행 공제무진(共濟無盡)은 각각 오백원의 거액을 의연하얏고 개성일반 유지들의 동정도 상당히 노플모양인바머지안허 증축소요금 삼만원모집이 완성되여 새로운서광을 보게될것이라한다

書店專門詐欺

【仁川】 거짓대학생이 경찰서신세ー본적을장기현(長崎縣)에두고 주소를 부천군부내면 (富川郡富內面)에둔 산구행기 (山口幸己)(三七)는 주식회사송옥(松屋)보험부에근무하고 잇다고 자칭하며 려순(旅順)공과대학을졸업한 우전무웅(友田武雄)(三七) 이라고도 사칭하고 인천부중정(仲町)일진당(日進堂)에서 전후수회에나 누워 서적과문방구를 시가수십원의것을 외상으로 구입하야현금으로판매를하고 다닌다는 소식을접한 인천서에서는 지난이십오일 마침내체포하고 방금엄중조사중이라는데 그외의범죄도 적지안흐리라한다

運動競技

實業庭球第九日 總府、府廳各勝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十日의總督府對殖銀戰(殖銀코ー트)은二十八日午後五時부터擧行한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總督府와京城府廳軍이 各勝하엿는데 總督府軍이 五戰五勝의 全勝率를 保持하고잇다

【府廳】勝 【朝銀】

府廳		朝銀
○河東植・赤松	4-2	木津・福田×
○張南星・申旋徹	4-1	庄司・橫田×
○洪承杰・李鳳基	4-1	中川・加藤×

【總府】勝 【鐵道】

總府		鐵道
○和栗・柳龍太	4-1	長沼・秋山×
○春日・盧昌斗	4-1	朴源福・金乙鉉×
○熊野・李應麟	4-2	鄭士連・渡邊×

實業庭球9日現在

順位		總府	專賣	遞信	殖銀	鐵道	府廳	商銀	朝銀	比率
1	總府	…			○	○	○	○	○	1.000
2	專賣		…	●	○	○				0.667
2	遞信		○	…	●				○	0.667
3	殖銀	●	●	○	…		○	○	○	0.666
4	鐵道	●	●			…	○	○	○	0.600
5	府廳	●			●	●	…	○	○	0.400
6	商銀	●			●	●	●	…		0.000
6	朝銀	●		●	●	●	●		…	0.000

【○은勝●은敗】

滿俱1 京電0

奉天滿鐵俱樂部 來征第一次戰인 對京城電氣野球戰은 二十八日午後四時五分부터京城球場에서 佐田(球) 中村 大島 富田(壘) 四氏審判下에 滿俱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一對零으로 滿俱軍이 一勝하엿다

◇投捕=(京電) 高木ー今村 (滿俱) 小島ー鈴木

京電 000000000ー0
滿俱 000001000ー1

府廳對京電決勝戰 十月三日로延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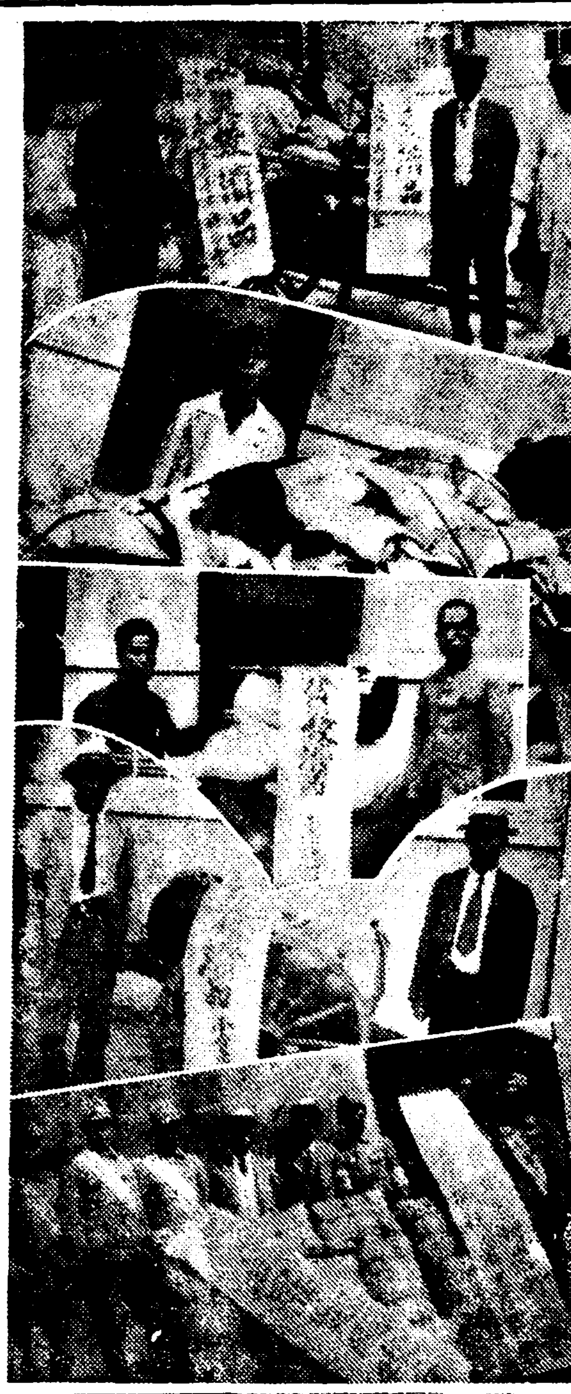
京城實業野球聯盟秋期리ー그首位決勝戰의 京電對府廳戰은 明三十日에擧行할 豫定이든바 兩軍事情에 依하야 來十月三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行하기로決定되엿다 한다

運動界集會

▲玄正柱氏(朝鮮蹴協理事)歡迎會는 今廿九日午後五時半 淸凉寺에서開催(會費一圓當日持參)

今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十日 午後五時 遞信對總督府(朝銀코ー트) 專賣對府廳(殖銀코ー트)
▲野球=京城府廳對奉天滿俱午後四時 京城球場



今日의救濟品ー上으로부터 天主教青年聯合會、竹添町一丁目、惠化町町會、壽昌町예수教會、付岩町青年團

南鮮水害救濟 蘇萊의素人劇

來三十日밤七時에

【蘇萊】 부천군소래면 사천시장 (蘇萊面蛇川市場)에서는 소래청년회(蘇萊青年會)의 주최와조선일보소래분국의 후원으로 오는 삼십일오후일곱시부터 전긔시장 가설극장에서 남조선수해구제소인극을 개최하기로되엿는데 동포애의 렬정에넘치는 당지인사들은 손을맛잡아 소인극의개회를 고대하고잇서 대성황을 예긔중이라한다

陳列品總交替될 德壽宮의美術館

日本畫、西洋畫、彫刻等七二點

今秋美術界의喜消息

리왕가 덕수궁미술관 (李王家德壽宮美術館)에서는 미술품의제사회 종교대진렬을 하려고 일즉부터 동경(東京)과 경도(京都)에서 사계대가들의 작품수집에 노력하든중 요사히 재반 작품이 전부도착하엿슴으로 동경으로부터 전변(田邊)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교수를 초빙하야 동교수 지도하에 계원이 총출동하야 주야겸행으로교대진렬에 종사하고잇서 이달이십구일까지에는 전부 끗날터이라고한다 이번교대진렬을 일반에게 공개하는것은 시월일일부터로 일본화(日本畫)가 십륙점이며 서양화(西洋畫)가 삼십팔점에 조각(彫刻)이십팔점으로총수가 칠십이점이나되는데 이번 교대진렬은 지금까지에비하야질로보아 한등손색이 업는 우수한 작품을 수집한것이라고한다

空家는惡黨窟

竊盜常習群一網捕盡

빈집에 동지들를모고잇는악당ー 시내동대문서에서는 얼마전부터 종로륙정목에 무위도식의불량배가 출몰한다는것을알고 계속주의하야오든중 이십칠일 드듸여 종로륙정목삼십이번지 빈집을발견 습격하야 그곳에숨어잇는 박복산(朴福山)(三一) 류일룡(柳一龍)(二〇)외네명의 절당을무난히체포하엿는데 이들은 일정한직업이업시 시내를방황하며 절도를하여오든불량배들로 취조에따라 그들의죄상이 속속판명될것으로 주

蘇萊

水害救濟素人劇會
▲時日 九月三十日 午後七時
▲場所 蛇川市場
◇主催 蘇萊中堅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蘇萊分局

開城

白頭山探險大講演會
▲時日 十月三日午後七時
▲場所 高麗青年會館
▲演士 金秉河、柳達永
◇主催 開城高麗青年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雙虹舞 【一】

方仁根 作
金奎澤 畵

虫先生 (一)

기묘한 산봉오리들은 푸른하늘밋해서 웃둑웃둑 줄을 주고잇다。이수어시 봉오리 산봉오리를 이 나려오다가 딱끗치고 엇칭나게 큰봉오리하나가 웃둑서는데 그산을 설봉산(雪峰山)이라고한다。다른산에는 눈이 다녹아도 이설봉산꼭대기에는 흰산조흐로인의 백발과가티 허여서 뭇산의 어른과가티 보엿다。과연이설봉산은 뒤에잇는 적은 산들을 호령 짐머지고 딱 버티고섯는 양이 아이를 업고잇는 인자한 어머니와 갓기도하고 천병만마를 거느리고잇는 씩씩한 장수와 가티도 보엿다。

어룽으로 다닥다닥 재갈먹이엇던 산끌재기는 녹아서졸졸거리여 노래하기를 시작하엿다。이끌재기 저끌재기에서 흐르는물들은 봄을 알리우는녹코ー러쓰를 하고잇다。그물들은 어룽도 돌코 바위사이도돌코 낭떠러지도 뛰여바질을 하며 어서어서 동내로나려가 봄을 전하는 사자의 직분을 하려고 부즈런히 가고잇다。그물이 흘러야 얼엇든 땅이 풀리고 메마른풀과나무에 생기를주어 다시 살게할것이니 과연물은 이땅의혈맥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도 어여뿐계생긴 이 물들은 저희들끼리 뛰엿다 재갈대며 흐르고 흘러 이설봉산중턱에 잇는 천계사(天溪寺)압을 지낫다。이천계사는 대찰은 아니고 조그마한 암자이지마는 여러백년이되어 고색이 창연하고 경개가 절승하며 아담스러웟다。더구나 이 절압흘 지나는 개끌물이 기묘한바위사이에서 (숨바꿈질)을하고 굽대군대에 폭포를 맨들어주어 더욱 운치스러웟다。

개끌물은 거기서 다시흘려서 산미트로 나려오다가 바로 초가요 밤은개와를인 큰집엽흐로 지나간다。이집은 이동내맨뒤에 잇는 바면장(朴面長)의 집으로 전후좌우에는 동산과밧이 잇고 과일나무가 둘러싸서 이촌에서는 제일가는 가대이다。

『아이。신통하지!』하고 그개끌물에 손을 담그는 처녀가잇다。그는 어름이 풀리고 물이 콸콸 흘르는것이 몹시 귀여웟든 모양이엇다。그는 바면장의 딸로 이동내에서 앙전하고 인물 잘낫다고 소문이놉은 은영(恩英)이라는 처녀이다。

설봉산 꼭대기에서 놉게 솟은물은 한데합수가되어 이동내앞에와서는 제법큰 내를이루웟다。시내좌우언덕에잇는버드나무와 풀들은 한겨울을 이밧저엇다가 물이흐르며 실컷쭉쭉 드리마시는것이엇다。

이시내를 가운데두고 수백호 큰동내가배포되엿는데 이동내의 자랑거리는 장터와면소와 보통학교이다。그리고는 이동내사람을 먹여살리는 면하고。기름진 들판이 잇다。

이고을에잇든 군청은 한군데는동에 적장근처로 옴겨가고 그자리에는 면사무소가 생기엇다。객사청은 수리해서 보통학교를 맨들고 여대말아서 여자부를 지엇고 운동장은 시원하게도 넓엇다。그운동장에는 수업시만흔 어린학생들이 세로뛰고 가로뛰며 노랏다。술래잡기 자치기 얼보찰기 비사치기 목말타기 유웨덕은 별별작란들을 하며 뛰고놀든 운동장은 수명쯤하니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드러가고 앙마구리 끌로하재히 조용해지엇다。

운동장은 귀신이 부르는듯감감하다。학생과 선생들사이에는정중한경례가 교환되엇다。뛰고놀든 어린학생들의 얼굴은 붉고 아름다운데다가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고운 햇빗은 그들의얼굴을 찬란하게 빗최어주엇다。

『어제 배운것 복습이다ー자 누가 외여볼테냐』 하고 광홍은 말하엿다。

『센세이! 센세이!(선생님)』하고 학생들은 외로손을 들엇다。어떠한생은 자기손이 좀더 놉히지게하려고 발꿈이려나 창아지처럼 궁둥이를 흔들며 법석이엇다。그들은 눈을 흐룽그리게뜨고 선생의눈과 자기눈이 마조치기를 애타며기다리엇다。

『아ー저 귀여운것! 저귀여운 손!』

광홍은 그어린이들이 한업시 사랑스러웟다。광홍은 그어리고 부드럽고 푸른 못손의 숲을 헤매며한학생을 지목하니 그학생은 큰소리나한듯이 벌떡일어나서 물피푸듯 외이는것이 엇다。

여게부고일에서는 학가소리가 운동하게 들리엇다。

離乳期와 發育不良

離乳期의 乳兒에게 언제까지나 母乳를 給與하는것은 適當한 育兒法이라고할수업다 元來乳兒가 離乳하야 다른飮食物을攝取치안허서는아니되는 原因은 胎兒中肝臟內에 貯蓄하엿든鐵分의缺乏에因한 自然의要求입니다 그럼에도不拘하고 鐵分이적은母乳 빵 죽가튼것으로 偏重하면食餌性貧血을 이르키어 發育不良의 根源이됩니다 또 發育이盛한 小兒에게도 偏食에 依한 食餌性貧血을 자조보지만 鐵分을 豊富히 包含한 血液資源의 부루도ー제를 常用식히는것은 가장 適切한 育兒法입니다

造血아옷호·루몬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도ー제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東京日本橋區本町

B.128

にきびとり美顏水

여드름 부룸에 第一조혼藥!

벼룩빈대等의毒虫으로가려울時

美容藥으로써!

얼골에기름 끼도는분、 얼골거문분 에第一等의 水白粉!

△特別化粧力

肌色美顏水

産業

苹果의原産地 北朝鮮으로移動
西、南朝鮮은이미飽和點에到達 咸南北만大增産繼續

朝鮮의 苹果는 現今 日本內地市場을 席捲할뿐만아니라 中國南洋近東에의 輸出은 勿論 멀리 英米에까지 進出하고잇는데 從來 朝鮮內의 苹果産出에는 從前의 主産地南朝鮮、西朝鮮이 飽和點에 到達한反面 咸南北一帶의 北朝鮮苹果栽培가 普及하야 北朝鮮의 統制와 相俟하야 苹果原産地는 北朝鮮一帶로 移動하는 新傾向을 生하야 자못 注目되고잇다

即 收穫의 實收에 對하야보면 十年産으로는 平南의 五百八萬貫、黃海의 四百九十萬貫을 筆頭로 咸南、慶北、咸北의 順位를 示하고잇는바 過去三個年의 是等五道의 增産率을보면 慶北은 二割六分、黃海四割三分、平南一割四分이나 咸南北은 모다 七割强의 旺盛한 增大를 繼續하야 西朝鮮、南朝鮮보다 飽和點에잇는데 北朝鮮은 더욱 廣大한 進展餘地를 갓고잇다

그런데 今年의 大體의 作況은 平南黃海는 期初의旱魃、慶北은 水害로 大打擊을 蒙하야 全朝鮮平均二割七分의 減收가 豫想되나 北朝鮮의 苹果는 자못 順調를 繼續하고잇다

苹果、水産物等 南洋進出有望
于先直通航路가必要

今後의 朝鮮對外貿易開拓은 南洋、近東이 最有望視되고잇는데 殖産局 石井技師는 六月末以來 釜山商議視察團과함께 朝鮮産의 南洋、近東進出狀況調査次 出張中이든바 九月廿八日 歸任하얏는데 今後의 朝鮮貿易의 南洋販路開拓에 對하야 于先 根本的의것은 直通航路의 開設이라고 다음과가티 觀察收穫을 말한다。

이번의 商議視察은 자바、세레베스、마레이、海峽殖民地、샴、佛領印度支那、香港의 各地一帶를 約七十五日間에 亘하야 觀察하얏는데 日本製品의 各地進出은 意外로 普及되여잇스나 朝鮮産品으로서는 水産製品과 苹果、電球、硬質陶器가 現在進出하야 歐米品과 角逐을 演하며 着着 地盤을 確保하고잇다 目下 各地모다 朝鮮事情이 周知되지안엇슴으로 取引量의 增大도 뜻대로되지안흐나 苹果等의 果實、水産物等은 直接的으로 곳進出할餘地가잇다 要컨대南洋은 一般으로 富裕함으로 購買力도豊富하야 朝鮮産의 進出餘地는 만타

現地를 觀察하고 南洋貿易의 振興上 痛感된것은 于先根本條件으로 南洋直通航路의 必要이다 直通航路가 업기때문에 水産關係로보면 罐詰以外의것이 進出難에 陷하고 그他諸上産도 進出할수업다 이와同時에 朝鮮事情을 周知徹底식히며 貿易促進을爲한 機關과 如한것도 必要하야 될수잇스면 總督府出張員 乃至貿易斡旋機關과 如한을 設置하야 現地에 駐在식힐 必要가 잇다

咸北道木材業 未曾有의好景氣
江水適量으로流筏도好調

【清津】北朝鮮一帶의 建築熱은 一般市況의 如何에 不拘하고 地方的特殊事情이 잇는만큼 木材界未曾有의 好景氣를 持續하고잇다 各製材業者는 晝夜兼行하야 作業中이나 需要를 채우기어려운形便이다 一方으로는 今年度 流筏作業도 江水適量의 好條件下에 各處가 順調로 進捗되야 일즉은곳은 八月中旬까지 終了되고 그外에도 在山殘材는 殆無狀態라한다

鰮罐詰共販會社 東京에創立決定

(次)로마도、써ー진의 日本內地朝鮮一元統制實現에 依하야 드듸어 鰮罐詰共販會社를 十月一日 東京에 創立하기로 決定하야 朝鮮으로부터는 稻井組合長이 渡東參加하기로되엿는데 同氏는 今回의 渡東에 際하야 水産課와 協議한 結果 日本內地朝鮮間의 農品販賣의 핸듸캡을 除去하고저 다음과가티 强硬交涉을 行하기로 되엿다

即 從前朝鮮內의 鰮罐詰은 朝鮮內檢査의 不備로 割低로되엿는바 今年부터는 朝鮮에서도 日本內地同規格의 檢査가 實現되여 以上日本內地와 朝鮮間에 價格相違는不合理함으로嚴重히 日本內地와 折衝하기로 되엿다

植物檢査主任會議

今年度 植物檢査官協議會는二十八日午前八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矢島農林局長統裁下에 總督府關係官 各道植物檢査官等 出席으로 開催하야 農林局長의 訓示가잇슨後 指示事項協議에 入하얏는데 會議는 三十日까지 續行하야 二十九日은 協議事項 三十日은 水原農事試驗場을 視察할豫定이다

平壤栗初出荷
一石三十二圓의高價

【平壤】平壤栗의 凶作으로 二割減收를 豫想치안흘수 업는데 그러나 栗의 『씨ー즌』은 當到하여 二十五日江東에서 初檢査를하여 朝鮮栗六石이 昨年보다 四圓이노픈 一石三十二圓의 高價로 初出荷가 되엿다 그러나 이것은 모다 東京에 移出되엿다 한다

水害와惡氣候로 慶北棉收大減

【大邱】慶北道內의 棉作은 水害와 惡氣候關係로 因하야 約四割六分의 減收를 豫想되여今年의 出廻數量은 約七、八萬斤에 不過하다고하며 前年에 比하야 一千萬斤程度의 大減少라고한다 그럼으로 慶北棉絲業界에서는 크게 悲觀하고잇다한다

法貨平價切下後 世界經濟消息

獨逸爲替對策 馬克安定維持

【伯林二十七日發同盟】法貨切下의報를 接하는同時에 히틀러總統은 쇠하트經濟相 크로지크藏相 노이라트外相을 緊急召集하야 對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行하엿다 獨逸大藏次官라인할트氏는 二十七日午後 케니히스브스라우젠의 伯林地方突擊隊部隊長會議에 出席하야 獨逸政府는 끗까지 通貨安定策을 堅持하겟다는 旨를 力說하엿다 라인할트次官은 말하되 第三國家은 끗까지 通貨安定策을 堅持하고 獨逸國民의 生活水準을 維持할 政策을 遂行中인데 그 結果 一九三三年一月 第三國家의 樹立이 經濟政策은 거의 實現되엿다 적어도 今日獨逸國內에서 責任의 地位에잇는者는 平價라도 馬克貨의切下를 생각지안는다 馬克貨는 依然 安定을 維持할것이라 것에 言明한다

世界經濟會議 成果如何重視

【東京電話同盟】金本位블럭의盟主 佛國의平價切下로 世界最後의 金本位國인 和蘭도 十七日에 至하야 마츰내 金輸出禁止를發令하고 金本位維持抛棄를 聲明하게되엇다 이리하야 純粹한意味의 金本位國은 方今 全혀 世界에서 消影하고 問題는 一轉하야 來年世界經濟會議에 集中되게 되엇는데 日本當局側의 觀測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今後 世界各國이 金本位를 離脫하엿기때문에 自由스런 通貨의 動向이 엇거되엿果 各國의 爲替市勢는 經濟、政治、軍事等 모든 綜合된 國力의 反映으로 出現하게되고 따라서 通貨關係를 먼저 比率에 依하야 決定하려는것은 도로혀 本末顚倒이다 이미 一九三三年의 世界經濟會議失敗도 이原則不顧에 起因하는것으로 人心이安定되고 國內國際關係事情이 落着된後에 비로소 通貨協定問題를 끄집어낼것인데 이事情을 無視하고 通貨協定을 지금곳 世界各國에서協約하려고한다면 經濟會議의 成果에何等期待를 가질수업다 도今後自由關係에 노이게된世界通貨中의 圓의地位를 어느곳에 노흘것이냐에關하야 一部에 圓의再吟味를行하여야 한다는意見도잇스나大[illegible]

倫敦財界觀測

【倫敦二十六日發同盟】倫敦財界는 佛國의 平價切下와 이에伴하는 英米佛三國의 通貨安定協定의 成立을 好感으로써 맛고 大體 如左한 觀測을 내리고잇다 佛國의 經濟界는 新方策에依하야 改善될것이다 株式市場이 再開되면 아마 佛國株式의 買物이 殺到할것으로생각한다 西、白耳義參加가잇서서 通貨安定協定은 强化되엿다 체코도 近近 參加하고 和蘭도 追隨할것이다 [illegible]

米國의金輸出 制限多少緩和

【華盛頓二十七日發同盟】米國政府는 一九三三年八月의 大統領令에도不拘코 金輸出에 就하야서는依然財務長官의 統制下에 嚴重히 [illegible] 實施하고잇는데 今回의 通貨協定成立의 結果 金輸出制限을 多少緩和하야 英佛兩國에 金의 輸出을 어느程度까지 許容하리라고보힌다 財務當局은 二十七日午後 如左히 言明하얏다 三國의 通貨安定協定成立의 結果 英佛兩國에 對한金輸出制限을 緩和하게될지도모른다 [illegible]

輸入配定制 廢棄를表明·英米佛政府에서

【쥬네브二十八日發同盟】英米佛三國政府는 法貨切下를 契機로 國際經濟關係의 秩序回復을 圖하고 究極에잇서서 輸入配定制와 爲替統制策을 廢棄할意圖를 表明하엿는데 佛國代表部는 聯盟側의 消息에 依하면 英國代表部를 誘導하야 聯盟總會席上에서 輸入配定制全廢의 決議案을 提出할 方針이아닌가한다

虎島、古寧의 漁獲大不振
漁民들의生活은極度로困難

【咸興】咸南永興郡의 漁産地인 虎島 古寧은 日本海를 東으로 끼고잇는 길다라케생긴 半農半漁의 地帶로서 其中에서 住民의 十分之七은 純全히 漁撈한 大海에 배를띄어 고기잡이 그날그날의 生活을하여가는 漁民들이라한다 그런데 昨年의 水産網이 不好하엿고 今春의 청어잡이가 亦是 不振하야 이가을에 정어리나 만히 잡히기를 바라고 잇섯던바 그도 亦是水泡에 歸하야 只今은 朝夕에困難을 밧고잇다는바 아프로도如前한 狀態이라면 實로 그들의 生活은 암담하다고한다

總督府、地方官制改正

十一年度의 總督府、地方廳의 增員에關한 諸官制改正은 二十八日付로서 裁可의것을 公布하얏는바 이에依하면 事務官六、屬百四十二、技師六、技手六十八、計四百十四人에 達하는데 此中產業經濟關係의것은 다음과갓다

◆總督府官制改正

一、自治管理法施行에 依하야 農林局에 事務官一、屬二、技師一、屬二、技手五를增員
一、鑛業事務를 爲하야鑛山課에 事務官一、屬二、技師一、技手十六、
一、遠洋漁業保護船을 爲하야 技師一、技手三、
一、市街地建築物取締를 爲하야 技師一、
一、重要輸出品檢査及 出貨統制를爲하야 屬一、技手一增

◆地方官制改正

一、京城府에 一課三部制實施를爲하야 事務官一、技師一을充當
一、羅津邑에 府制實施를爲하야 府尹一、屬五、技手一을 增員配置
一、農村振興事務擴充을 爲하야 郡島屬百十名各道에 十三名의 增員
一、小作事務를 爲하야 忠北에 小作官一 全北 黃海 咸南에 小作官補各一名
一、米穀自治管理施行을 爲하야 屬四 技手十三名增員
一、市街地建築取締를 爲하야 技手三 警部補六
一、鑛業事務處理를 爲하야 忠南 平南 平北 咸南에 技手各一
一、產業組合指導를 爲하야 慶南에 屬一名
一、原動機及 自動車取締를 爲하야 技手五 忠南北 全北江原 咸北

그他 稅務署官制는 技手一名增員、營林署官制는 技手一、雇員一名增員이 各히 公布되엿다

숨에서숫이난다
棉實殼으로煉炭製造 珍奇한뉴ー스採算도確實

【靈光】棉에서 숫(炭)이 나온다는 珍奇한 發見이잇다 一旦廢物이된 棉實殼으로 훌륭한 煉炭을 만드러 낸다는 말이다 靈光面白鶴里李忍氏는 이에對하야 昨年六月부터 一年以上의 研究를 거듭하여오든中 採算의 確實性이잇고 또 需要期가 압헤잇슴으로 인제는 本格的으로 實出하라고 木浦對岸 高下島에다가 五百餘坪의 工場을 設置하고 六個의 燒釜를 据置하야 每日 潭陽한 黑煙을 吐하고잇는데 一日의 棉炭製造能力은 五噸이라고한다 高下島工場에서 태워낸 棉實殼灰를 다시 柳町製炭部로 運送하야 거기서 『南鮮炭』과 特約한 無煙炭과 加工하야 비로서 完全한 製品이 된다고한다 製品은 全部 光州方面으로 販賣가된다는데 이에對하야 李忍氏는 아래와가티 말한다

棉炭製造에對한 最初의着眼者는 光州姜石鉉氏엇다 同氏로부터 專門的調査의 依賴를맛흔 東京帝大農業部 化學研究室 河合九洲夫氏가 來木하야 實地研究에 着手한것이 昨年六月이엇는데 以來一年동안은 全然히 採算의 所望이업섯다 研究에對한費用만 하드라도 只今까지 一萬圓以上이엿다 그것이 最近에와서 充分히 採算의 確信이생겻슴으로 인제는 研究時代를 지나서 아조 本格的으로 製造에 着手한것이다 現在는 每日 五噸의 製造能力밧게는 갓지안엇지만 需要의 增大를따라 燒釜數를 늘릴 생각이며 燒釜도 目下特許申請中이다 原料의 棉實殼은 木浦日華製油會社와特約이되엿슴으로 可謂 無限에 갓가운만큼 供給이 될것이다 또 한편으로 『南鮮炭』과 好意的 提携를 하고잇슴으로 無煙炭도 無盡藏이니까 將來原料에 困難은 보지안흘것이다 그런데 이 棉炭의 特長은 火力이 强하고 持火力이 아조 良好하야 約 木炭의三倍라하며 다른 煉炭과 달러 無臭無烟인 까닭에 一般家庭所用에 適切하다하며 게다가 價格이低廉함으로 需要의 方面이相當히 廣闊하리라고 一般은 보고잇다고한다

新義州商工業者의苦衷 ④
滿浦線의開通과 商圈分野의變動

製材工場擡頭와 企業熱

滿浦線開通을 目捷에두고鐵道敷設景氣가 地價를 奔騰케하고 또 江界及滿浦鎭에서는 他의 企業熱이旺盛하다 兩地産議會에서도 民間有志로부터 力說한바 兩地는 모다 製材及 精米工場이 有望한것가타 現在 滿浦鎭에서는 十數件의 動力申請이잇섯스나 發電能力의 關係로 아즉 未契約이라고한다。精米工場은 且置하고 製材工場의 出現이 本都新義州에 如何한 影響을 及케 할것인가 하는것은 要考慮事項이지안흘수 업는 命題이다 滿浦鎭에서는 江岸에 木材荷揚의 豫定地까지 設定하엿는데 同地附近에는 適當한 林地가 缺乏한만큼 結局 上流로부터 資材의 供給을 受치안흐면 안될 것이다 그러타하면 流下材를 途中 滿浦鎭에 陸揚하야 製材를 하야가지고 鐵道로 輸送치안흐면 안될터인데 滿浦鐵道運賃과가튼것은 新義州까지나 滿浦鎭까지나 大差가업슴으로 地元消費를 目的으로하는 小工場은 別問題로하고 平壤以南까지 市場을 擴大하랴면 競爭上 不利하다 이點에서 江界附近은 林地와의 關係도 好條件이오 現在江界木材株式會社를 가지고잇스며 更히 化京面、別河里、价古介等도 製材工場地帶로서 有力視되는터이다 또滿浦線에서의 木材鐵道運賃制度도 鐵道局과의間에 諒解가成立되모양가트며 또 江界營林署에서도 製材工場設置의 腹案이잇는모양인바 今後江界를 中心으로 製材工場의 濫設는 特히 注目할만하다 남은問題는 이企業의 資本인데 地元資本에 依할것인가 或은 平壤又는 新義州의 資本家에 依할 것인가이다 資本의 進出은商圈과 密接한 關係가 잇는데 現在上流及 奧地의 木材資金은 거의다 新義州方面으로부터 流出되고잇는때문에 新義州의 다른 商業去來에도 間接的으로 好影響을 밧고잇는것이다

最後로 이地方의 製材工場의 擡頭가 新義州의 木材界를 脅威할 程度까지 發展하겟느냐 하는것은 아직 研究의 餘地가잇는問題이다

大豆取引의圓滑化와生産獎勵策

平北의 大豆生產高는 約四十萬石인데 全朝鮮中 第二位다 이主産地는 鴨綠江上流地帶인데 鴨綠江流下貨物中 木材에다음가는 重要産物로 一年六十萬隊(約二十萬石)이 上流로부터 新義州에 流下되는것이다 最近은 그數量이 漸次減退되는 傾向인데 그主要原因은 穀物檢查의 不統一 陸路輸送의增加等의 緣由이다 上流地帶와 新義州를 經濟的으로 連絡하기爲하야는 大豆取引의 圓滑化를 圖함必要가잇는데 卽上流로부터 新義州에 入港하는船便에는 歸航할때에 반드시 物資를 積載하고上航하는 때문에 一般商業去來도 이에伴하야 旺盛하여 지는까닭이다 從來 當局의 方針은 鐵道沿線의 米作奬勵第一主義이엿스나 今後 上流地帶의 田作奬勵에 用力하야 品種改良 增産獎勵等을 實行하게되면 農家經濟更生을 爲하야도 有効하고 一面 新義州로서는 大豆取引으로 因하야 一般商圈進出에 直接 間接 好結果를 招來할것이다 이와가티하자면 大豆의 輸送保管金融等 施設의 擴充等에 對하야 크게 考慮 善處할 必要가잇다

製鍊所及製絲工場設置

滿洲國에 隣接하야 豊富한 鑛脈을 가지고잇는 平北의 地下資源을 開拓키爲하야 製鍊所를 設置함은 國境產業開發의 根本策이라하야도 過言이 아니다 平北의 鑛産物은 現在 其大部分이 鎭南浦로 搬出되는데 이는 道內에 製鍊所가업는 때문이오 이에따라 探鑛獎勵 鑛山金融等의 鑛業施設도 考慮할問題이다

또 農家의 副業인 養蠶도 近年에 括目할 發展을 遂하야 產繭量이 年年 增加하는中이나 產繭의 大部分은 平壤과 京城으로 搬出되는데 이는 平北에 製絲工場이 업는때문이다 이와가티 平北에는 鑛產物이나 農產物이 豊富한 資源을 가지고 잇지만은 工場 其他의 施設이 完備되지안키때문에 原料대로 他道에 移出되는것인 즉 工業振興을 爲하야 工業地帶의 建設은 極히 主要한 일이라 아니할수업다 特히 製鍊、製絲工場가튼것은 原料關係로 보아 速히 設置하여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村落金組와都市金組

村落金融組合의 活動은 實로 顯著한데 農村振興運動의 基本組織은 金融組合下에 設置되여잇는것이 아닌가하고까지 생각되리만큼 積極的으로 活動하고잇다 그런데 이에 反하야 都市金融組合은 全혀 銀行化하고 너머도 消極的이다 아직 商業組合、工業組合의 設立을 보지못한 朝鮮의 現狀으로서는 都市金融組合이 中心이되여 窮境에 빠진 商工業者를 救濟키 爲하야 活動하는것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생각한다 村落組合의 對象은 農民인데 都市組合의 對象은 中小商工業者이다 農民이 窮迫한 理由가 잇는것이오 商工業者가 窮迫한 理由가 잇는것이면 村落組合이 零細한理由가잇는 것이요 都市組合이 經營管理上 엇슬것이다 組合과 組合員과는 全혀 利害가서로 一致하는 不可分關係에잇슴으로 都市組合에서도 村落組合이 農家更生에 가지는熱意를 가지고 商工業者更生을 爲하야가지게하엿스면 相當한 實績을 擧揚할수 잇슬것이다

鴨江水運利用化와道路政策

平北의 上流及 奧地의 道路政策은 모다 滿浦線鐵道의 培養線이 되도록 計畫하여젓슴으로 滿浦線이 全通되면上流의 物資는 거의다 滿浦線에 吸收될것이다 鴨綠江水運은 滿浦線鐵道와가티 平北의 二大經濟動脈으로 現在에 잇서서는 新義州와 上流地帶를 連絡하는 唯一의 交通生命線이다 그럼으로 滿浦線鐵道의 經濟的利用化도 元來 必要한 것이지만은 天然의 鴨綠江水運의 利用化를 無視하는것은 國境産業開發上 然諾히 할수 업는 問題가 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道路政策을 鴨綠江水運의 培養線으로 計畫함은 新義州의 商圈을 維持하는데 絶對必要할뿐아니라 장차 江岸鐵道가 敷設되는 境遇에는 가장 有効하게될것임으로 只今부터 考慮하여야 할것이다 그럼으로 滿浦線第一主義의 道路政策이 新義州商圈에 及하는 影響은 玆에 再論할 必要도 업다 (完)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廿八日現在)

物品合計 十三萬九千八百七十一點
穀物合計 三十五俵一斗四升九合

城津天主敎會靑年會 衣 八四四點

高마다리나 三一點▲宋安수 三〇點 朴비아 二三點▲林엘나니아 三三點 金마리아 二四點▲吳데리사 二三點 崔말다 二五點▲金마리아 二三點 李오필나 二〇點▲池마리아 二〇點 李가다리나 二〇點▲朴막네쓰 二〇點 金수산나 二〇點▲金누시아 十八點 韓말지나 十八點▲洪세리나 十八點 李비리시다 十六點▲金필노미나 十六點 朴수산나 十六點▲韓바올나 十五點 金마리아 四〇點▲車마리아 十四點 趙요셉 十三點▲무명씨 十三點 姜세시리아 十三點▲金도나다 十三點 申막다리나 十二點▲비안네 十二點 吳말가리다 十二點▲金누시아 十二點 崔안나 十二點▲金요안나 十一點 무명씨 十一點▲金세비나 十一點 尹말다 十一點▲朴데리사 十一點 金누시아 一〇點▲金바울나 一〇點 白베로니가 九點▲韓마리아 八點 黃수산나 八點▲文요안나 七點 韓수산나 七點▲金말지나 六點 李안나 六點▲李말지나 六點 金세시리아 六點▲金누시아 五點 鄭모니가 五點▲申발바라 五點 徐마리아 五點▲申마리아 五點 鄭알벨니나 五點▲洪방지가 六點 李모니가 四點▲李마리아 四點 柳데리사 四點▲金세시리아 四點 李누시아 四點▲李아가다 四點 林아나다시아 四點▲申비비아나 四點 韓막다리아 四點▲金발바라 三點 李발바라 三點▲崔마리아 三點 金누철나 三點▲李말지나 三點 田가다리나 三點▲李울슬나 三點 林아가다 三點▲李데리사 二點 申마리아 二點▲金모니가 二點 任경회 二點▲任순식 二點 韓수산나 二點▲金모니가 二點 成마리아 二點▲金수산나 二點 申마리아 二點▲鄭말지나 二點 尹섬여 一點▲金마리아 一點 무명씨 一點▲徐비안나 一點

陵谷支局經由 衣 九六點

韓學圭 五點▲朴承煥 一點 尹根培 一點▲洪鍾玉 二點 李圭衡 一點▲任世宰 一點 成仁德 一點▲李鍾善 一點 閔奉伊 一點▲朴根遠 一三點 李應鎬 三點▲丁海鵬 一點 嚴啓男 七點▲朴鍊學 七點 金亨燮 一點▲金恩順 八點 高敬子 一點▲梁順伊 三點 李雲權 四點▲李蓮雨 一點 李元順 一點▲金思鎬 二點 秦着憲 一點▲金永奇 一點 金先景 三點▲高漢甲 一點 李聖弼 一五點▲韓德熙 一點 銀貞順 四點▲金昌粉 五點 李相雨 一點▲朴慶熙 一三點 金奉順 一二點

安岳支局經由 衣 一五一點 藥品 五〇點

安岳餠一家具店金斗星 三十一點 崔寧姬 十點▲洪寧熙 十點 金福心 八點▲浪承思 六點 朴粉子 五點▲李玉善 四點 李鳳烈 三點▲白德基 三點 金聖分 三點▲崔泳周 二點 李龍雲 二點▲李德俊 二點 李粉玉 二點▲林龍福 二點 崔龍子 一點▲李順任 一點 李仁順 一點▲張大鎬 一點 成基月 一點▲金榮植 一點 李基春 一點▲李鳳禮 一點 朴鏡順 一點▲崔光熙 一點 任日敎 一點▲安健華 一點

大阪支局經由 衣 二〇一點

大阪市西成區今宮朝鮮基督敎會員一同 衣類五九點 大阪市港區瀞生町十一正盛館舍宅內林鑑熙 衣八點 大阪市西成區長橋通六丁目九 金乙仙 衣類二六點 大阪市東成區片江町山陽敎會大阪支部李鍾珠取扱分 韓道元 二點▲康澤林 二點 梁南花 五點▲梁南春 四點 洪淳燮 四點▲宋詮鄕 二點 全進玉 一點▲宋癸生 二點 金甲孫 一點▲宋淑熙 一點 康貞仁 一點▲金順生 一點 李花先 二點▲洪興生 二點 高康春 四點▲康戊生 二點 兪峰春 四點▲韓吉祚 二點 金斤生 二點▲高永培 五點 高年紿 七點▲鄭二煥 七點 金伯仁 三點▲李花子 六點 李福妹 五點▲金珍鎬 四點 任奉南 二點▲朴辛相 二點 姜丁贊 二點▲金龍伊 三點 姜昌順 四點▲秦元日 五點 金禮今 二點▲任二順 五點

永登浦支局經由 (第二回分) 衣 一五四七點 米 二斗六升五合

永登浦運送店 一八點▲藥九八點 金貴玉 二〇點▲朴性喆 藥五〇點 曹明學校兒童一同 敎科書六五冊

◇永登浦第一區町會 郭南鎬 一點▲洪軍華 一點 金致根 一點▲張相吉 二點 金仁馱 二點▲朴泰運 一點 金召史 五點▲白文玉 五點 金長俊 二點▲崔泰山 一點 鄭翰秀 三點▲張慶南 二點 梁相玉 二點▲鄭寅煥 四點 徐漢明 一點▲宋昌秀 三點 白用順 一點▲秦德三 一點 高順益 二點▲趙聖善 二點 趙仁淳 三點▲韓秀仁 一二點 崔秉武 三點▲李衛壽 五點 鄭公云 二點▲鄭敬熙 二點 崔永瑞 六點▲文仁成 六點 朴先文 二點▲金興成 三點 玄駿鎬 三點▲玄點亨 六點 朴長成 一點▲金方鬱 二點 李龍九 一點▲黃基福 一點 金元泰 二點▲羅宗煥 二點 金浩權 一八點▲姜允城 三點 李石奉 四點▲林富山 四點 段道垣 六點▲李斗先 一點 東洋ミシン社 四點▲張浩歆 三點 金鑛浩 二點▲朴百萬 五點 朴永守 三點▲李元奎 三點 文三成 二點▲崔建淑 三〇點 成允釗 四點▲黃熙栢 一點 宋貞仁 四點▲崔順男 四點 金顯星 一二點▲金華星 一點

◇本洞町會 張興泰 六點▲金雲弘 一點 金点龍 一點▲李仙龍 一點 鄭福順 一點▲崔点熙 一點 張山月 六點▲張梅紅 四點 采山玉 五點▲朴氏 一點 漢京樓主人 六點▲崔炳植 八點 徐今順 四點▲河公執 三點 金後昌 三點▲高炳均 一點 尹璽宅 三點▲羅七龍 二點 金閑文 一點▲金明萬 一〇點 劉開文 一點▲金槃振 六點 李泰福 三點▲車圭鴻 二點 金永根 三點▲朴昌熙 四點 金且福 二點▲李建哲 四〇點 李寬玉 一〇點▲金寄奉 五點 李秉泰 一二點▲徐廷玉 一〇點 金孝善 三點▲金德熙 二點 李元成 六點▲李敎純 二點 金仁龍 二點▲李順允 一點 宋雲星 二點▲安昌烈 三點 金昌福 七點▲崔元基 三點 安得順 四點▲成東俊 三點 申漢順 四點▲朴敬旭 一點 成祥運 二點▲金相業 二點 金璟洙 四點▲丁順泰 三點 徐漢俊 八點▲吳今用 五點 康昌亨 六點▲姜鎬秀 四點 金相云 五點▲宋三龍 三點 吳仁山 四點▲李文善 三點 金龍雲 四點▲金甘術 二點 孫昌奎 四點▲崔泳雲 五點 金上萬 二點▲金上奉 一點 李得順 二點▲金大榮 四點 成億萬 五點▲金得千 五點 洪長成 五點▲張壽永 五點 姜有成 一六點▲林應春 一點 徐順永 一二點▲張平三 二點 李廷秀 四點▲林鳳奎 一〇六點 金石實 六點▲金相玉 三點 李命山 二點▲康弘民 二點

李再洪 五點▲嚴成三 五點 姜大成 七點▲金玉福 二點 梁仁泰 二點▲池丁順 三點 趙善奎 七點▲安鍾鎬 五點 安元秀 一點▲朴興萬 四點 梁完秀 六點▲韓先興 四點 鄭鍾善 七點▲申十金 一五點 張老馬 三點▲魚秀甲 二點 金龍雲 四點▲高準植 二點 金順在 三點▲李尙烈 三點 金興萬 二點▲金榮來 二點 李明哲 四點▲李麒煥 五點 李小先 二點▲朴祥鳳 二點 愼鏞鎬 二點▲閔允大 三點 金得求 六點▲閔在斗 八點 鄭祥洙 六點▲黃基銘 四點 李純琰 二點▲李玩用 一點 金東善 四點▲李点亨 二點 金永完 二點▲李健榮 二點 姜興善 二點▲高弘順 三點 姜興植 五點▲河相振 三點 朴福奇 八點▲崔晩哲 四點 崔銀山 一五點▲崔性吉 三點 崔文植 三點▲申周鉉 二點 李錫俊 一二點▲安洪基 七點 尹映求 二點▲張仁煥 五點 李學洙 七點▲具榮會 二點 李明成 二點▲安壽東 一二點 李康瀨 一五點▲鄭永叔 五點 呂鐘錄 一點▲金書錫 一點 李泰文 一點▲鄭雲鳳 三點 金明云 三點▲鄭寅斗 五點 安順學 二點▲高得出 一點 都元奎 二點▲金甲童 一點 許奉山 一點▲呂相俊 一點 金一石 四點▲閔鍾植 一〇點 閔鍾源 一〇點▲金鍾鐵 一點 鄭富成 三點▲安千福 二點 崔內斗 五點▲李小奉 七點 金小童 七點▲金三女 八點 史順女 四點▲孫氏 四點 宣熙泰 六點▲田金成 五點 李龍雲 二點▲李榮 一點 林寬浩 六點▲金基仁 四點 張在順 七點▲姜興植 五點 申泰漸 四點▲權丙朔 五點 高巨福 二點▲黃基鉉 二點 池澤君三 六點▲河福童 一點 李命吉 一點▲柳基順 三點 韓南赫 二點▲金萬吉 一點 李點龍 一點▲禹化成 二點 林千亨 三點▲金錦玉 三點 尹璽德 三點▲尹龍燮 三點 李龍雲 三點▲高應植 二點 尹斗昌 三點▲延在有 一〇點 李愚燮 一點▲崔東植 一點 朴壽奉 七點▲金道鉉 九點 表仙女 一點▲安淳爀 二點 姜龍國 二點▲韓道一 二點 李寅軾 四點▲馬相宗 四六點 趙敬祥 四點▲安泳祐 四點 林昌吉 三點▲李用學 六點 林澤洙 三點▲朴正浩 二點 金成煥 三點▲閔泳善 五點 閔丙周 一〇點▲馬相福 二點 李龍基 四點▲南泰植 三點 康英榮 五點▲李春植 七點 朴泰煥 五點▲安永祐 一二點 李明瑞 五點▲金明善 六點 李建哲 一冊▲梁完秀 一疋 閔田眞三郞 一疋▲朴諺奉 米二升 金奉德 一升五合▲李泰山 五合 文敬燮 一升▲朴命福 五合 尹成國 五合▲朴成遠 三升 安昌熙 一升▲成祥運 一升 延乘熙 五合▲陳千能 五合 閔興大 一升▲李圭所 二升 李昌植 一升▲張相玉 一升 申俊哲 一升▲申龍成 一升五合 徐商憲 三升▲林應潤 一升 丁奎昌 一升▲柳千象 一升 金在文 一升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二六、三〇京城憲兵隊職員▲一、〇〇京城友ノ會▲二七〇、〇〇衛鐵京城營業所▲一、八四興南稅關派出所職員▲三五京城地方專賣局瑞石販賣所職員▲八七穩城稅關出張所職員▲九五同保田販賣所職員▲二七、四三朝鮮憲兵隊司令部職員▲三〇、〇〇大和町一丁目町會(京城日報社扱)▲一六、八一京城刑務所職員▲一、五〇全南務安郡玄慶面東山學院生徒(每日申報社扱)▲一五、四八官幣大社朝鮮神宮社務所職員▲七二、六九京城高工、工業學校、兩校職員▲二三六、四二京城日報社扱(內譯)二百圓也仁川府、仁和藝妓券番妓生一同 七圓二錢也濟州島翰林面、道水書堂 十九圓四十錢也忠南、公州面、公州農業學校生徒 十圓也忠南、上帝敎總本部▲一、七〇京城地方法院長湍出張所職員(京城日報扱)▲六〇新浦專賣局販賣所職員▲一〇、九一朝鮮總督府圖書館職員▲九〇、三六西大門刑務所職員▲七七、二八朝鮮總督府財務局▲八一、六二京城地方專賣局職員▲三〇、〇〇東京市神田區淡路町公友會會員一同▲七、九六雄基稅關支署職員▲二、〇〇廣州煙草耕作組合職員▲一三、七二軍馬補充部雄基支部職員▲六、四四南陽稅關支署職員▲三、〇〇龍仁煙草耕作組合職員▲一〇、九七京城地方專賣局金城出張所職員▲一、八一永興灣要塞司令部職員▲七、三六陸軍兵器本廠平壤出張所職員▲一、三六四、六六大邱專賣局支局河東出張所職員▲二、一五河東煙草耕作組合職員▲二〇、二五鎭海灣要塞司令部職員▲一、四二海州地方法院新浦出張所職員▲四、七一仁川稅關往文串水產製品檢查所職員▲一、〇〇京城地方專賣局元山出張所鎭興販賣所職員▲二、六〇同仁川販賣所職員▲一、九五同永登浦販賣所職員▲五五同素砂販賣所職員▲七三同春川出張所販賣所

九月二十四日現在累計 一八〇、五五六、六九

訂正

▲九月二十一日附發表中 五十五圓京城府太平通朝鮮地方行政學會職員及從業員一同이라한은京城府南米倉町朝鮮地方行政學會職員及從業員一同의 誤植이기 訂正함
▲九月二十六日附發表中 紅十字會寄附金中大興成二十錢은 二圓 安合號一圓은 十圓 福音建築廠一圓은 十圓의 誤植이기各各訂正함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八九〇〇	忠南瑞山郡雲山面	八月三十一日
一六〇二	忠南瑞山郡代谷面	同
一八六七	忠南公州郡木洞面 [illegible]	同
五〇二八	全北茂朱郡赤裳面	同
一三一八〇	慶北慶州郡內東面	同
一三二五〇	黃海遂安郡大千面	同
九六七六	咸北慶興郡雄基面 富寧郡觀海面	同
九八六一	咸北鏡興郡雄海面	同
一二九〇一	咸北吉州郡長白面	同
一〇二〇一	慶北奉化郡小川面	九月一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京城府淸進町 代表者 鄭明[illegible] [illegible]城郡金旺面 淸水[illegible]三 [illegible]阿波郡土成村 [illegible]三 京城府淸進町 代表者 鄭明[illegible] [illegible]城郡金旺面 淸水[illegible]三 釜山府岩南里 代表者 吉村[illegible] [illegible]倉郡 代表者 木村[illegible] 釜山府土城町 林[illegible] 遂安郡水口面 代表者 小泉[illegible]太郞 同 李[illegible] 同 金[illegible] 同 姜[illegible]洪 東京市麴町區丸ノ內 富興鑛業株式會社 東京市麴町區丸ノ內 富興鑛業株式會社 京城府[illegible]町 代表者 任[illegible]來 抱川郡內面 金[illegible]培 京城府仁寺町 金初月 蔚山郡蔚山邑 代表者 曾[illegible] 奉化郡乃城面 南[illegible]顔 蔚山郡上北面 鄭[illegible]俊

黃昏 (190)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그전후 (十一)

『무슨 중요서류든가?』

복술은 다시 어리케 물엇다。

『아니 전번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다나……아마 직공들의 건강상태를 적은건가봐』

『그래、어떠케됏니? 차자냇니?』

정님은 첨은、자기에게 딴게 업는 소리로만 녁이고 심상히 들엇스나 말이 어까지 미치자 귀가 솔깃해젓다。그것을 어떠케 한번 어더보고 시픈 생각도 나고、남들에게 뵈여주고시픈 생각도 낫다。

『그이튼날엔가 다른 설합속에서 나지긴 나젓다드라만……』

『그러면 말성될거 업지안니?』

『아니야。그런게 아니랑。내가 빼내다가 다른사람들에게 뵈여주고 도루 집어넛대나……』

『그리구 또 아프로도 그럴 우려가 잇다구……』

『그러치만 애매한 닭에야 그만둘거까지는 업지안니? 아무리 나가라고 하대두 나가드면 한사코 버틔고잇겟다……정작나와버리면 그만 루명을 뒤집어쓰는 심인데……』

『그도 그러치만 나가라는건데 뻐득뻐득 잇슬맛도업고 또 그리지안허도 발서부터 그만두라는차이고해서 오늘 아주 그만둔다고하고 나와버렷다……저도사람이면 좀 뜨금할테지……』

『애、어림도 업는 소리 하지마라……나오는 날이 마지막이지……나와만 버리면 어듸 머해볼땡이 잇나? 저로서 제입장을 몰리하게 만들어노코 돌아서서 벨르기만하면 무슨소용이냐? 내일부터 길에서 만나봐라。아르척이나 허나』

『아니다。그래도 그는 내손에서 지워고 멍예고 모다 매장되는것만봐라』

정님은 이러케말하는동안 새 다시 흥분되어갓다。자기를 반성하라는 조그만 자제(自制)조차 일허버리엇다。

그는 지금 서른둔제를 생각하고잇는것이아니라 자기에게대한 사장의 물이졍한 행동을 엇보다 분하게 생각하는 것이엇다。그는 어떠케해서든지 분푸리를 해주라고 생각하엿다。자기의 얼굴을 까가내리는한이 잇더라도、사장의 몸을 가로차내는 한이 잇더라도 추행을 들어 그놈의 지울수업는 치욕을 새여주라 하엿다。

그러나 복술이는 사장과 그의관계를 모르는니만치、그런심써까지를 살필수는 업섯다。

『어떠튼 네가 나와버렷건 너무 경솔한것이다。웨 나와? 나오질……잇서가지고도 얼마든 후벌을 가릴수 잇는건데……』

복술은 정면 정님의생각과는 정면 닷지도안는 딴생각을 하고잇섯다。이판에 정님이가 그대로 회사에 잇서주엇드면 혹시 유용하게 리용할수 잇섯슬걸……하는 생각을 하엿든것이다。

『아니다 더 모른다。나와가지고도 얼마든 할수잇다。나올때에야 그저나왓겟니。어느모로든지 골려주고 말지』

『글세 그건 네생각이겟지만 인제은 뭐 별수업슬거다』

『아직은 순용이(동생)때문에이리구 잇지만……내입이 러지는 날이면 어떠케 되나 두고봐라』

『참 순용이는 별일업니?』

『웨、순용이도 첨은 그서류때문에 의혹을 삿단다。그리다가 결국 내가 뒤집어 쓰게되니까 그앤 버서젓지만 그애도 오라지는 못할거다。그전에는 사장도 퍽신용햇는데 요새는 무슨 눈치를 보앗는지 중요한 회의가 잇는때에는 그애도 못오게 하드라……』

『그런데 또 네가 그러케 나와버렷스니까 순용이게도 다소간 영향이 잇슬거아니냐?』

『그러치만 쪼차내면 나오는거지 이 잇더라도、어젯든 그저는안 잇슬작정이다。두고만 봐라』

『하지만 외로운 장군이 엇다구 뭐 별수잇니?』

『그러기말이다。그래서 나도준식씨한테 상론하라고 차저간것이다。』

『그래 만낫섯니?』

『아니 막 어되로 나갓드라。그래서 오래간만에 너무 만날셔、주씨씨가 혹시 여기 오자안햇나 하고……』

『안왓다。어되 우리집엔 다니는줄 아니?……못안온다다』

『몸이 진해도 안댕기니?』

『그럼』

복술은 이러케 시침을 떼고이어 말을 돌려、

『그리고 또 그룹 만날를 뭐할수잇니?』

『아니 그러케 아니라 좀 상론할게 잇다。』

하고 정님은 저고리 앞섭헤서 손수건에 싼 서류봉치 하나를 끄냇다。

그리고 맹마듸 이애기를 하는데 밧게서 사람의 발소리가 나서 정님은 얼결에 다시 집어 감추어버렷다。